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03

오늘의 마켓 지수
(오전 10시 30분 현재)

KOSPI	2,169.17	▲	35.96
코스닥	542.66	▲	6.61
환율			
· 달러	1,049.10원	▼	5.40
· 엔	1,516.95원	▲	2.90
· 유로	1,349.28원	▼	8.79

KDB산은금융그룹 대우증권

2011년 8월 1일 월요일 제209호



한숨 돌린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부 법정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채무한도 증액 전격타결

국가 부도위기 넘겨… 아시아증시 반색

미국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겼다.

국가 부도 위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상원과 하원의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채무한도 증액 및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디폴트를 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9170억달러(약 962조원)의 지출을 감축키로 했다"면서 "감축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1월까지 추가적인 적자감축 방안을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며칠 내에 이를 승인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채무한도 증액 방안에 포함된 정부지출 감축은 취약한 미 경제상황을 감안해 빠른 속도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균형잡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채무한도 증액에 관한 초당적인 합의안은 1일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 타결 소식에 아시아증시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 1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일본 증시 닛케이225지수는 177포인트 오른 1만10.17을 기록하고 있다. 홍콩증시와 대만증시 역시 각각 1.5%와 0.45% 올랐다.

코스피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과 프로그램이 매수세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96포인트(1.69%) 오른 2169.17을 기록 중이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오늘의 이투데이

승자·패자의 막전막후 하이얼 vs 소니 9면



"꼬 톱 IB 목표" 우리투자증권 황성호 사장 10면



"中企·소상공인 올 347억 지원" 이성 구로구청장 12면

'경제 사면초가'에 대한민국은 무방비

환란이후 최대위기 한국경제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물가불안, 국가 재정문제, 노사관계 악화,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글로벌 경제위기 등 한국경제를 뒤덮고 있는 재앙들로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은 실종됐고 효과 없는 즉흥적인 '땜질'처방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물가 위기관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물가가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가 됐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책을 내 놓더라도 때가 늦었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강압이어서 부작용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7개월 연속 4%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에 고물가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채무도 급격히 늘면서 재정건전성도 우려스런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환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유로존 위기 등의 여파로 널뛰고 있는 환율이 수출 동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환율유지 정책도 시급하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최근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정부도 물가안정을 위해 당분간 원화강세 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분간 환율하락장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가계저축률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도 부담이다. 부동산 경기와 실물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가계대출이 800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빚은 건설업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마찬가지로 상당액이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에 물려 있어 더 큰 문제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경제대국의 경제상황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최근 유럽남부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경제위기와 미국 디폴프 우려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반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생겨 상인들은 틈만 나면 물가를 올릴 구실을 찾고,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며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방법에 따른 자원배분 왜곡 뿐 아니라 하반기 물가폭탄으로 경제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기획시리즈 2·3면

위기의 징조

- 재정건전성 악화
- 외환유동성 불안
- 고삐풀린 물가
- 꽉 막힌 노사관계
- 가계부채 눈덩이
- 부동산 장기침체
- 글로벌 경제위기
- 위기관리 구멍

기업銀 "자산 300조 대형은행 키운다"

조준희 행장 창립 50주년 기념식서 "2015년까지 탄탄한 은행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조준희 기업은행장이 대형은행 성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조 행장은 1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2015년까지 총자산 300조원 규모의 대형은행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초로 M&A 없이 독자적인 힘으로 총자산 300조원 시대를 열어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철보다 탄탄한 은행으로 한 단계 올라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사 서두에서 경계해야할 것으로 '자만'을 꼽은 조 행장은 "과거 로마의 역사가 최근 노키아의 쇠락에서 보듯이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잘 나갈때 몰락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함을 가르치고 있다"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재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조 행장은 '금융의 새로운 미래 IBK'라는 슬로건 하에 2015년까지 △총자산 300조원 성장 △기업·개인 고객 각 100만·1500만 달성 △중소기업 연관 신시장 창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동아시아 IBK금융벨트 확고히 구축 △획기적인 서비스, 신상품개발 등 수익원 발굴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행장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고졸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올해 고졸채용이란 파격인사를 단행했던 조 행장은 "지난 6월, 15년만에 처음으로 고졸신입행원 20명이 입행한 것처럼 입행부터 승진, 교육 등 앞으로 모든인사는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성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행장은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봉산개도(逢山開道) 우수가교(遇水架橋)'를 인용하며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 자세로 함께 난관을 극복하고 뚜벅뚜벅 전진해 나간다면 다가올 미래는 반드시 기업은행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조준희 IBK기업은행장이 1일 오전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7월 소비자물가 4.7%↑…7개월 연속 고공행진

이달 물가가 더 무섭다

폭우탓 8월도 먹구름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4.7% 상승해 7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기상이변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8월 소비자물가도 치솟을 전망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질 전망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올랐으며 전달보다는 0.3% 포인트 올랐다. 4.7% 상승률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3월과 같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로 지난 1월 4.1% 상승한 이후, 2월 4.5%, 3월 4.7%, 4월 4.2%, 5월 4.1%, 6월 4.4% 오른 뒤 7월 4.7%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5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라 2009년 5월(3.9%) 이후 2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전달보다는 0.3%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8% 올랐고, 전월 대비로는 0.8% 상승했다. 생선·채소류·과실류 등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9.0% 급등했을 뿐 아니라 전달 대비로도 8.1% 치솟았다.

공업제품은 석유류(13.6%)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6.3% 올랐다.

서비스 부문은 3.0% 상승한 가운데 집세가 4.2%, 공공서비스 1.5%, 개인서비스 3.3%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집세 상승률은 지난 2003년 4.3%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기여도는 공업제품이 1.99%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1.77%포인트, 농축수산물 0.99%포인트였다.

주요 품목의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돼지고기(41.2%), 쌀(13.2%), 고춧가루(27.0%), 고등어(36.4%), 수박(31.5%), 달걀(25.8%) 등이 급등했다. 반면 국산 쇠고기(-17.0%), 배추(-29.9%), 파(-37.1%), 무(-34.9%) 등은 값이 내렸다.

공업제품에선 휘발유(11.6%), 경유(14.5%), 금반지(13.3%), 등유(24.5%), 자동차용 LPG(12.5%) 등이 올랐다. 설경진 기자 skj78@



안정성 시험을 거친 검증받은 루테인!

침침한 눈의 중년을 위한
대한민국 눈 건강 프로젝트 아이락

하루가 다르게 침침해지는 중년의 눈 건강을 위해 눈의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 루테인부터 챙겨주세요! 아이락은 나이 들수록 빠져나가는 루테인을 하루 한 알로 간편하게 보충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중년의 눈을 위한 건강한 습관,
아이락!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눈의 노화로 눈이 침침할 때
- 야간 운전 시
- 장시간 렌즈 착용으로 건조할 때
- 컴퓨터 사용으로 눈이 피로할 때
- 눈 부실 때
- 야외 활동 시(자외선 노출)

가까운 건강 기능 식품 코너에서 구입하세요
아이락 루테인은 타르 색소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 색소만을 사용합니다



Arlico 알리코제약㈜

선거 눈치보며 "복지·복지…" 나라 곳간이 흔들

✓ ❶ 국가 재정건전성 위기

남유럽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전세계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부채비율 상승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관련 지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장기 재정전망 등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가부채비율 35.1% →2050년 137.7%로 급증 =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42조7000억원 늘어난 43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GDP 대비 비중을 보면 35.1% 수준이다. 선진국인 미국(99.3%), 일본(234.1%), 독일 (76.5%) 등과, G20 평균인 78.8%에 비하면 재정건전성이 나은 편이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을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세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의 연금·의료 제도 등을 유지할 경우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7.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과 건강보험 등 7개 분야의 지출은 현재 GDP 대비 6.0% 수준이지만 오는 2050년에는 17.8%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담도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기금이 고갈되면서 현재 1.2%에서 2050년 5.1%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부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건정성이 한계에 도달해 더 큰 문제가 생기기전에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그 기준을 넘치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의료 등 재정지출 요구 늘어 =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무상급식·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제2차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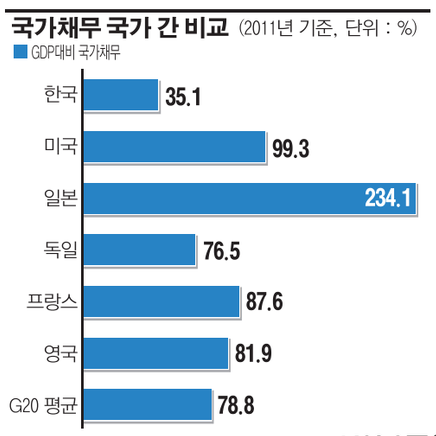
국가채무 435조 GDP 35%
美·日보다는 양호하지만
가파른 증가율 불안, 불안

무상급식·반값등록금…
정치권 포퓰리즘 정책에
재정지출 요구는 눈덩이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을 전후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정지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 요구액만 봐도 지난해보다 7.6% 늘어난 33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6.9%)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학등록금 완화 등의 사업을 빼고도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2조원에 이르고 민주당이 제기한 무상급식 등



◇국가 적정부채 2030년 50%대…재정부, 장기 재정전망 추진할 것 =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는 '국가채무의 적정비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GDP대비 62% 수준이 적정하다고 발표했다. 적정채무는 국가채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하는 채무수준을 말한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측은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에는 50%대로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국가채무비율이 67.8%를 기록, 적정 비율인 58%를 넘어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와 같이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연금관리기관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재정전망 협의회에 제출해 종합적으로 국가채무상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기관별로 전망을 하는 전제와 시기 등을 맞추고 결과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의료 분야 재정도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완 장관도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남유럽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해야한다"며 "재정여력을 확보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정위기는 한 번 발생하면 해소가 어렵고 극복하는 데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Fiscal Rules)을 통한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재정준칙은 기준이 엄격할수록 재정건전성은 확보되지만, 조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가능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14년전 'IMF의 악몽' 지난 1997년 12월 3일 임창렬 경제부총리(중앙)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오른쪽)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캉드쉬 당시 IMF 총재가 지켜보는 가운데 IMF 긴급자금 지원을 받기위한 의향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 부채 386조 먼저 터질 수도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국가 재정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경영 정보를 공시한 결과 지난해 총 286개 공공 기관 부채는 총 38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 자산 총액은 654조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최대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25조4692억원으로 지난 2006년 (50조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만 16조226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양사 통합이전에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산발적인 개발 사업을 벌여 온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부채가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올해도 부채가 20조원 가까이 늘어 총부채가 144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보금자리사업·세종시·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오히려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4년간 부채가 21조원 이상 불어났다. 올해 42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채규모가 2015년이 되면 67조3000억원대로 증가한다. 한전은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2015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 2조원의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4.9% 인상되면서 수입이 늘어나지만 만성적 적자 문제까지는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 회수시한으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비난여론에 휩싸일 수 있어 미수금 완전 회수시한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문가는 "하반기에 일부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채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빚을 줄이기는커녕 부채 급증세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단기외채 증가세… 유럽 재정위기 남 일 아니다

❷ 외화유동성도 안심 못해

금융위기 당시 80%까지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
악재 겹칠 땐 '실탄' 부족

"지금 같은 속도라면 대외채무가 2분기 심리적 지지선인 4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지난 6일 대외채무 증가를 염려하며 한 말이다. 이를 시작으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시작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에 "외화건정성을 유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급격한 대외채무 증가를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일부 제한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대외채무 증가 급증, 관리 부실시 위기 초래= 정부가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대외채무의 증가 속도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대외채무가 느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증가 속도가 빠를 경우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대외채무는 올 1분기 3818억5900만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분기에 비해 218억7400만달러나 늘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분기 247억9200만달러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단기외채가 116억9800만달러 늘어나며 증가분의 47%나 차지했다. 2008년 1분기에는 단기외채가 25억5100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쳤다. 단기외채 증가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4배 이상 규모가 크다. 정부로서는 데자뷰(기시감)를 느낄법도 한 셈이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현재는 3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위기에 대응할 실탄은 충분하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3000억달러는 위기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변한 상황도 있다. 우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은행의 단기 차입도 늘어나며 금융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시작한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시작했다면 현재는 유로존 재정위기·미국 경기 침체라는 외부, 가계부채·고물가라는 내부의 악재가 겹쳤다.

금융위기는 재정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는 의미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금리를 인하하려니 가계부채와 고물가가 부담이다. 재정을 확대는 채무 증가 속도를 키울 수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도 유로존 위기를 유심히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중 유럽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이 걱정거리이다. 유럽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1%(2481억달러)다. 올 1분기에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가 늘면서 이같은 증가추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프랑스 등 덩치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에 번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 자금이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화유동성 위기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재정적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유로존 위기는 온·오프(On·Off)를 반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의 국가에 구제금융을 합의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민간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면 구제금융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흥국 등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상무는 "그리스 지원금액 중 500억유로를 민간채권단이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과 같은 안전하게 투자해서 이익을 본 국가에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본의 급격한 유입, 성장에 악영향= 물론 현 상황이 위기에 근접한 것은 아니다. 단기외채를 준비자산으로 나눈 단기외채 비율은 올 1분기 49.1% 전분기 대비 2.8%포인트 늘었지만 50%를 넘은 수준은 아니다. 단기외채 비율은 지난 2008년 당시 80%대까지 오르며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단기외채 비율은 718.6%까지 치솟았다. 은행의 외화유동성도 올해 들어 100%대에 머물면서 당국의 지도기준인 85% 수준을 넘었다.

이 상무는 "정부가 최근 외화유동성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전적 차단의 의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채무 관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최근 '자본유입 급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은행 차입, 증권 투자 등에서의 자본의 급격한 유입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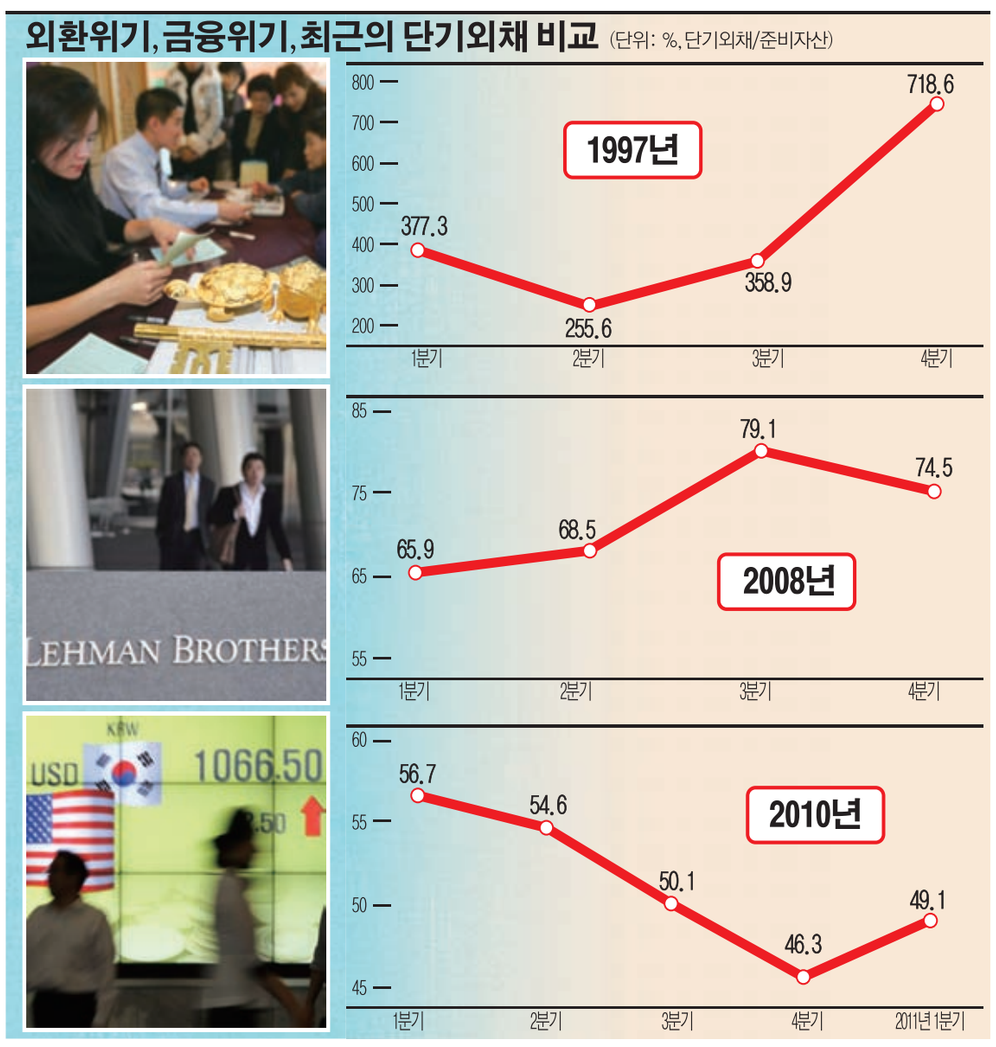


자본유입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기에 급증했다는 것은 고용효과가 큰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인수합병(M&A) 투자, 생산 효과가 적은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유입된 외자 잔액은 8250억달러다. 이는 2010년 중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조143억달러의 8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책 당국도 이같은 점을 고려해 최근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축소했다. 은행의 단기 차입을 줄이기 위해서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영준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자본유입의 속도나 규모가 과도한 경우에는 금융시장 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며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부 대외채무 관리 나섰지만…

김석동 위원장 "1순위로"…만기 쏠림 모니터링 필요

대외채무 관리는 정부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 부문의 순대외채무 증가 규모가 예금취급기관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올해는 은행의 외환건전성 문제를 1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외채무를 줄이기 위해 남탓만 하지 말고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순외채(채무-채권)는 530억9500만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5억7800만달러에 비해 165억1700만달러(31.1%) 늘어난 규모다.

정부부문의 순외채 증가는 일반정부의 순외채 증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의 순외채는 지난해 1분기 240억4500만달러에서 올 1분기 372억8300만달러로 132억3800만달러(35.5%)가 뛰었다. 같은 기간 공기업은 순외채는 125억3300만달러에서 158억1200만달러로 20.7%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외국인의 국고채 매입이 이어지고 공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늘려 순외채 규모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채권투자 증가추세는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채권 순투자(매입액-매도액)는 올 상반기에만 6조7201억원이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 81조812억원으로 사상최고치다.

이들이 국고채 위주로 투자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채무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 억제책을 더욱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금융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시킨 데 이어 조만간 과세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2010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통해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금취급기관의 순외채는 올 1분기 102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의 1038억4700만달러보다 1.0% 줄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을 통한 외국인 자금유입은 대외채무 증가로 이어진다"며 "외환위기 경험의 낙인효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외부 충격이 겹쳐지면 금융시장 취약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차입, 스왑거래(통화교환 거래), 보유채권 만기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삼성전자 3대핵심과제로 'SW기술·S급인재·특허' 제시

이건희 회장 사람에 다시 집중한다



선진제품비교전시회서 3대 화두 강조

조직 쇄신…외부 우수인력 영입 탄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정기 출근을 시작한 지 지난달 29일로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여일 동안 이 회장은 삼성그룹 내부 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진단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삼성을 100년 지속 기업으로 키워 나갈 지가 남은 과제다.

이 회장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삼성그룹 내부의 부정부패, 품질 논란 등 '인재(人災)'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人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1일 삼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42층에 마련된 집무실에 정기출근한 지 100일이 지나면서 삼성에 유례없는 개혁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서울 태평로 사옥시절에는 회사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정기출근 100일을 보내며 이 회장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었다. 이제 본격적인 삼성 개혁이 고삐를 당길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2011 선진제품 비교전시회'를 참관한 것이 삼성 개혁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날 이 회장은 약 2시간에 걸쳐 전시된 제품을 직접 비교 시연한 후 "10년 후를 위해 '소프트기술(소프트웨어, 디자인, 서비스 등)·S급 인재·특허' 등 3대 핵심과제를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사장들이 S급 인재를 뽑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은 열과 성을 다해 뽑고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건희 회장의 인재경영은 잘 알려져있다. 1등 정신, 신경영 선언, 창조경영 등 삼성의 주요 고비마다 내놓은 전략이 인재경영이다.

"한명의 천재가 10만~20만명의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천재론, "뛸 사람은 뛰어라. 걸을 사람은 걸어라. 능력이 없는 사람은 쉬어도 좋다. 뒷다리만 잡아 당기지 말아라"는 뒷다리론 등이 대표적이다. 천재를 육성해야하고 노력하는 천재를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다.

외부 우수 인력 영업에도 적극적이다. 디자인 경영 강화를 위해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꼽히는 크리스 뱅글과 계약했고 특허전쟁 승리를 위해 퀄컴 출신의 특허전문가도 영입했다.

송영록 기자 syr@

무역수지 흑자 월간 최대

지난달 72억달러… 수출도 514억달러로 최고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500억달러, 흑자가 70억 달러를 각각 돌파하면서 수출과 무역흑자 모두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식경제부는 1일 '2011년 7월 수출입동향 보고서'를 통해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7.3% 늘어난 514억달러, 수입은 24.8% 늘어난 442억달러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은 지금까지 월간 최대치였던 지난 4월의 기록(486억달러)을 넘어섰으며 무역수지는 주요 품목의 원활한 수출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72억달러 흑자를 이어 나갔다.

지경부는 "원화 강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둔화 등 대외적 불안 요인에도 월 기준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신흥개발도상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따라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72.5%), 석유화학(41.3%), 석유제품(89.2%)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선박(42.6%)과 자동차(23.9%)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와 액정디바이스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각각 14.9%, 20.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ASEAN) 회원국 등 개도국(34.5%)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미국 등 선진국(4.9%)보다 높았다.

이진영 기자 mint@

기자수첩

최중경의 계속되는 '오버'



윤 필 호
정치경제부
beetlebum@

"대기업 경영진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 이를 줄여 청년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경련 포럼'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기업 경영진 월급 감축 발언을 해 재계이 빈축을 사고 있다. 단순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정도를 넘어 직접'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실상 재계를 상대로 일방적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기업들 위에 군림하듯 제시한 발언은 그 동안 정부가 언급해 온'민·관 협력', '업계 자발적'이라고 외쳐왔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최 장관은 재계를 상대로 또 다시'오버'를 한 셈이다.

최 장관은 이미"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 간부를 해고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동반성장을 매개로 압박의 수위를 높인 바 있는 최 장관은 유가 인하와 관련해 "기름 값 연착륙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최 장관의 반시장적 행태가 이어질수록 관련 업계를 비롯한 재계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기업 경영진 월급이 높다"는 발언에 대해 기존의 시스템이 빚어낸 '옥의 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가 건드려서는 안 될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해야 할 정부가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며 마치'못 먹는 감 찔러보듯'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현안의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망각한 꼴이다.

게다가 최근 기름값 인하를 위해 지경부가 꺼내든 카드는 '대안 주유소'이지만 큰 공감대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회로 부터 '땜질식 주유소'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주유소라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최틀러'라는 비아냥소리까지 듣고 있는 최 장관은 이제 기업을 억누르는'오버'보다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시장적 정책을 위해'오버'할 때이다.

▌제일은행 파업 36일째

은행은 멍드는데… 아무도 책임 안져

"공멸의 길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노동조합 파업이 한달을 훌쩍 넘긴 데 대한 사측 고위 관계자의 본뜻이다. 노조는 파업 정당성에 대한 명분을 잃고 사측은 고객을 잃었다. 아무런 성과없이 상처만 남겼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SC제일은행 노조 파업은 1일을 기점으로 36일째를 맞았다.

은행권 최장기 파업이지만 사측과 노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데는 힘의 균형이 한쪽에 쏠리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선 노조의 파업 파괴력이 예전같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창구거래를 통한 자금이체 비중은 올 2분기 12.6%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5년 1분기 이후 사상최저치다. 특히 창구거래는 텔레뱅킹(12.8%)에도 뒤쳐지면 처음으로 꼴찌로 내려앉았다.

노조 관계자는 "IT부문이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는 법적 장치가 파업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털어놨다. 해묵은 투쟁 방식에서 새방향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소통 방식에서 고집불통인건 사측도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는 도입시기를 못받은 일방 통보로부터 시작했다. 성과연봉제의 당위성과 달리 노조의 반발이 커지는 건 당연지사.

이 같은 양상으로 은행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43개 지점을 임시 폐쇄하며 한 때 예금인출 규모는 1조원에 달했다. SC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인출 규모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최근 정기예금 재예치율이 뚝 떨어졌다"고 말했다. 통상 재예치율은 50%를 보인다. SC제일은행은 20~30%까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고객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한은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은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에서 인사말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작년 세금 166조 징수

역대 최대규모

국세청이 지난해 징수한 세금이 166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15.7%, 사치성 제품과 골프장, 경마장 등에서 걷는 개별소비세가 39.1%나 각각 늘어나며 세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2010년 세수실적'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세수는 166조149억원으로 2009년의 154조3305억원 보다 12조원가량(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작년초 목표로 세웠던 160조2000억원에서 6조원가량(3.6%)이 더 걷힌 것이다.

국세청 세수중 간접세는 60조7324억원, 직접세는 77조862억원으로 각각 6.3%, 7.3% 늘었다.

직접세 가운데 갑종근로소득세는 15조5169억원으로 15.7%, 증여세는 1조8734억원으로 54.9% 증가해 세수에 기여했다.

종합소득세는 14조5965억원(8.3%), 법인세는 37조2682억원(5.7%), 양도소득세는 8조1633억원(11.7%)으로 늘었지만 이자소득세(-15%), 상속세(-1.5%)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간접세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3년만에 다시 5조원대를 회복해 39.1% 늘어 세수증대를 이끌었다. 부가가치세는 49조1212억원으로 4.5%, 주세는 2조8782억원으로 4.1% 증가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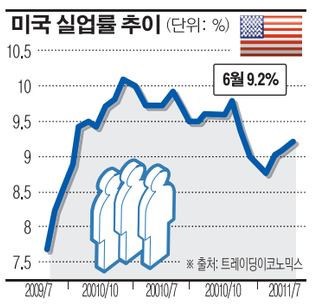


美 국가부도 위기 넘겼지만…

회복 기미 없는 경제… 여전히 '벼랑끝'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격적인 타결에 성공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암흑 속이다. 경제성장률은 지지부진한데다 전망도 어둡다. 경제회복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를 채무한도 협상에 낭비한데다 경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도 이미 소진됐다는 평가다.





지난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에 그쳤다. 예상치인 1.8%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1분기 성장률도 당초 1.9%로 발표됐지만 1.3%로 하향 수정됐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 등 외부요인이 미국 경제의 회복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의 주체인 소비가 힘을 잃으면서 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분기 소비지출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경기 회복은커녕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

국가 부도 위기에 정부의 총알도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은 1.1% 감소했다. 나라가 부도 위기라는데 지출 여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앞으로 정책의 초점이 긴축에 맞춰진만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백악관·공화당, 결국 한발씩 양보 타협 이뤄
경제성장률 지지부진…고용시장 여전히 '냉랭'
신용등급 강등 불가피… 더블딥 가능성 고조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줄어든 셈이 됐다.

부도 위기를 넘겼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근 재정긴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경제성장이 0.5%포인트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고용시장도 여전히 얼어있다.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3% 이상 경제가 성장해야 하지만 하반기까지 미국의 성장률이 2%를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했던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2.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는 3.5%였다.

4분기 전망치도 3.0%로 기존에 비해 1.3%포인트 내려잡았다.

그나마 이는 긍정적이다.

경제연구소 IHS글로벌인사이트는 3분기 성장률이 2%를 밑돌고 1%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말까지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미국 자금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빠져나간 돈은 375억달러에 달한다.

대형은행과 기업들이 MMF를 통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장 심리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대규모 재정적자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다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는 재정수입보다 지출해야 할 자금이 더 많아 1310억달러의 운용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제외한 무디스와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대한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S&P는 미국이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해 왔다.

무디스는 부채 협상 타결 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국채의 원리금만 지급할 수 있으면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美 재무협상 이후 정계구도

오바마·베이너 지고 매코넬 뜬다

미국 정치권의 법정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 끝에 타결되면서 정계구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언론은 이번 협상 과정 중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향후 리더십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정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고 밝혔으나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에 많은 양보를 하면서 지지기반이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다.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정책과 세금 감면 중단, 의료보호 시스템 정비 등에서 잇따라 실패한 가운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세금인상 중단과 복지혜택 축소 등 공화당 제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민주당 유권자들의 실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수행 지지율은 40%로 지난 2009년 1월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LA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995년 연방정부 폐쇄 조치 당시의 빌 클린턴 대통령 지지율인 42%보다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다.

베이너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 '정부 부채 2단계 상한방안'에 대해 공화당 내 강경보수 진영인 티파티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베이너 의장은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하원 표결을 하루 연기하는 굴욕을 겪었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주말 백악관, 민주당과의 막판 협상을 급진전시키면서 워싱턴 정가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WP는 매코넬 의장이 지난달 30일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과 직접 접촉하면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면서 그의 정치적 감각과 당내 영향력 등이 부각됐다고 극찬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방한 강행하는 日 자민당 의원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왼쪽) 참의원(상원) 의원,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가운데),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중의원(하원) 의원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1일 오전 하네다공항에서 한국과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주파수 경매 '승자독배' 되나

이통3사 수천억 돈싸움… 출혈경쟁 양상
소비자에 비용전가…정치권 재검토 촉구

"이제 돈 싸움이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주파수 경매가 돈싸움 양상을 띄면서 업계 안팎으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KT든 SK텔레콤이든 비싼 경매가로 주파수를 가졌갈 경우 이들이 치른 낙찰금액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찌감치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로 확정지은 2.1㎓ 대역과 달리 1.8㎓ 대역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이 확보에 총력전을 벌일 태세여서 과열 경매로 출혈경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과거 유럽에서 3G 주파수 확보를 위해 치른 과열 경매의 피해가 국내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00년 주파수 경매에서 통신사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최저경쟁가격에서 54배나 많은 98억유로(10조원)에 낙찰 됐으며, 독일에서도 84억유로(8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다.

때문에 정치권과 업계의 관심사가 이달 중순 경 치러지는 주파수 경매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4G 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로 1.8㎓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KT와 SK텔레콤 모두 필승의 지를 다지고 있다.

사상첫 주파수 경매 진행상황

주파수	특징	최저입찰가	경매진행예상
2.1㎓(20㎒)	스마트폰 최적화, 황금주파수	4455억원	LG U+ 단독응찰.
1.8㎓(20㎒)	유럽 등 다수의 나라에서 선호.	4455억원	SKT-KT, 입찰예상.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무한배팅.
800㎒(10㎒)	미국,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사용.	2610억원	SKT-KT, 1.8㎓ 확보실패한 사업자 입찰예상.

결국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라운드를 거듭하는 이른바 '무한배팅'으로 치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경매는 '승자의 저주'로 끝난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상한선도, 라운드 제한도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낙찰 가격이 시초가인 4455억원의 2배, 3배까지 치솟을 수 있다. 세간에서는 SK텔레콤과 KT 간의 주파수 과열 확보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통신사들도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수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은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 인수전에도 참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KT 역시 아직까지 LTE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LTE 구축에 타사보다 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8㎓ 외에 4G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주파수를 확보해 경매정책에 반영하거나 경매 자체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파수 경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에 따른 과열경쟁 탓에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다가오고 통신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매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철우 기자 acw@



親朴 지역조직 장악 "이젠 주류"

16개 시·도당위원장 중 8곳 차지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 미칠 듯

한나라당 주요지역 시·도당위원장직을 친박계(친박근혜계)가 장악했다.

친박이 명실상부한 주류로 자리잡는 순간이다. 일부는 추대형식으로 임명됐지만 상당수가 경선을 치렀다.

그 결과 1일 현재 총 16개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친박계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절반에 해당하는 8곳을 차지했다. 반면 친이계(친이명박계)는 울산, 강원, 제주 등 3곳만을 지켰고, 경기는 중립인사가 선출됐다.

경남을 비롯해 광주, 전남, 전북 등 4곳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를 제외한 수도권과 텃밭인 영남권, 충청권 등 알짜배기 지역을 모두 친박이 가져가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사실상 지역조직을 모두 흡수했다.

직전에는 기존부터 공석이었던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13곳 중 친이계가 5명, 친박계가 6명이었다. 친박은 친이가 위원장으로 있던 서울과 부산을 빼앗아 온 반면 친이가 친박지역을 가져 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 37명 중 친박계는 구상찬·김선동·이성헌·이혜훈 의원 등 4명에 불과했던 곳이어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위원장 선출방식의 관례도 무너졌다. 과거에는 주로 재선 또는 3선급에서 위원장을 맡았다.

또 위원장 후보가 여럿 나올 경우 다선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임기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례까지 깨면서 계파 간에 세게 붙었다.

이는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규에도 '시도당위원장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시·도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공천권을 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다선의원 배제론'이나 '텃밭지역 물갈이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자신의 공천만은 지키겠다는 의도도 깔렸다.

최근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직 인선 과정에서 내홍이 컸던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사무총장, 부총장 등과 같은 주요당직자와 각 시·도당위원장이 되면 최소한 자신의 공천은 지킬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점이 집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일 기자와 만나 "총선 때 통상적으로 현역 의원 중 30~40%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 주요직책을 갖는 것이 공천 받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한 친박 의원은도 "시·도당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부분 반영되는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된 분들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선 경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의중 기자 zerg@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비를 맞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울시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日의원 입국 강행 '일촉즉발'

정부 "입국불허 강경대응 맞설 것"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1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울릉도 방문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정부는 '입국불허'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경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고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1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불허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이재오 특임장관 또한 이날 3박4일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으며 "전범 후예들이 감히 대한민국을 시험하려 한다. 한발도 디딜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독도 지킴이를 자처했다. 이 장관은 실제 독도경비대와 함께 불침번을 서며 일일초병을 체험할 계획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칼만 안 들었지, 한일 관계를 두 동강 내는 자객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며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 공항을 출발, 11시2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다.

한편 한발 앞서 일본의 극우 역사학자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대 교수가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입국이 금지된 채 1일 새벽 일본행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는 한국영토를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의 방한에 대한 첫 입국금지 조치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울릉도 찾은 이재오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울릉도·독도로 출발하기에 앞서 포항 여객터미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24일 확정

물난리에 여론 나빠… 한나라 지원 "글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전 회의를 거쳐 10시경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정무부시장은 31일 "주민청구에 의한 투표 발의는 권한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주민투표가 공표되면 7일 이내 발의하도록 돼 있어 발의 (최종) 시한인 1일 선관위에 필요한 서류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주민투표를 공표하면서 28일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등 중부권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가 급증하자 발의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이 확정적인 가운데 오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해 책임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자칫 주민투표에만 몰두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부 우려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해도 오 시장의 계획대로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연일 '오세훈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31일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회의론'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조차 1일 기자에게 "시가 발의하면 당은 지원에 나서야겠지만 수해로 인해 반감이 큰 상황이라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황 원내대표가 지적했듯 여론도 심상치 않다.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해마다 급감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강남시장의 강남 무상급수' '표를 물로 돌려줘' '한강르네상스 정체는 수상도시 베네치아' '오세이돈, 아라뱃길 예산 한푼 없이 만들다' '주민투표 아닌 주민소환' 등 인터넷은 오 시장을 비난하는 온갖 신조어로 넘쳐났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1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투표가 오 시장 시정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로 비화, 자칫 투표함조차 개봉치 못하는 과정에 직면할 경우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한나라당의 내년 수도권 총선 전망에도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이다. 주민투표는 투표율 33.3%(288만명)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다.

주민투표에서는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서울시 안(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2011년)·중등(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서울시의회 안 중 택일을 하게 된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교과위 '반값 등록금' 법안 논의

여야 의견 차이 심해 진전 없을 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논의를 끝낸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차가 심해 사실상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 3대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비롯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데, 여야 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이 등록금 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는데, 한나라당의 입장표명 없이는 한 발짝 진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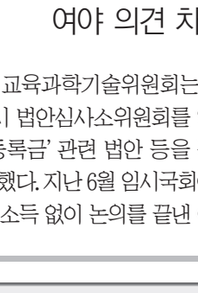
관람안내

제27회 MBC 건축박람회

인증전시회 지식경제부

동시 개최

냉·난방 및 건축설비 박람회
바닥재 및 석재 박람회



最多관람과 最高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건축박람회가
9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주택관련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는 MBC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세미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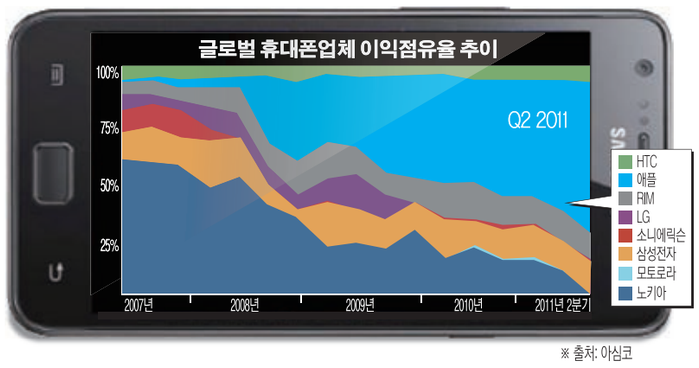
일 자	시 간	장 소	내 용	강 사
9월 3일(토)	14:00 ~ 17:00	킨텍스전시장 2층 208호	행복한 내 집 짓기-1	미래하우징
9월 4일(일)	14:00 ~ 17:00	킨텍스전시장 2층 208호	행복한 내 집 짓기-2	미래하우징

• 기 간 : 9. 1(목) ~ 9. 4(일)
• 장 소 : KINTEX (일산 킨텍스)
• 관람시간 : 오전10시 ~ 오후6시 (토·일요일도 동일)
• 전시품목 : 건축자재 / 인테리어 / 전원주택 / 냉·난방기기 및 건축설비 기자재 / 바닥재 및 석재 / 조명 / 건축정보 / 건축·주택 관련제품
• 주 최 : MBC
• 주 관 : 동아전람
• 관람문의 : 동아전람 Tel. 02)780-0366
• 오시는길 : 승용차 – 올림픽대로 → 가양대교남단 → 가양대교북단 → 강변북로 → 자유로 → 킨텍스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자유로분기점(일산방향) → 자유로 → 킨텍스IC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3번 출구 무료셔틀버스 이용
도보시 – 대화역 2번 출구에서 아파트 사이길로 직진 (10분소요)
버스 – 강남 : 9700 서울역/광화문/신촌 : 770, 72, 1000, 2000, 9708, 8880, M7106
인천터미널 : 3000 인천공항 : 공항리무진, 3300 영등포 : 9707, 870, 873 김포공항 : 공항리무진, 150
일산지역 : 도시형 (88, 151, 200, 700, 900, 919, 093) 마을버스 (9, 091, 056, 057, 080, 082, 089)
무료셔틀버스 안내 – 킨텍스 ↔ 대화역(3번 출구)
주차안내 – 승용차 : 30분/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 종일주차/6,000원 (1일)
대형(화물·버스) : 30분/2,000원 (추가 30분당 1,000원) 종일주차/12,000원 (1일)

전시장소 : KINTEX (일산 킨텍스)

글로벌 휴대폰시장 수익 '애플 독식'은 계속 된다

시장 점유율 5%가 전체이익 66% 싹쓸이



※ 출처: 아심코

애플의 대박행진은 어디까지인가.

전세계 8대 메이저 휴대폰기업들이 지난 2분기 거둔 이익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인 66.3%에 달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포춘이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 아심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같은 기간 글로벌 휴대폰 판매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애플이 휴대폰 부문에서 경쟁사를 압도하는 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애플은 전년 동기 글로벌 휴대폰업체들이 거둔 이익의 39%를 차지했다. 이익점유율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노키아는 지난 2분기에 판매 기준 24.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19.2%, LG전자가 6.8%를 각각 기록해 2, 3위에 올랐으나 이익 부문에서는 애플에 압도당했다.

삼성은 갤럭시S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20%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으나 휴대폰산업 이익 비중은 2년 전의 21%에서 15%로 낮아졌다.

노키아와 모토로라, 소니에릭슨과 LG는 지난 2분기에 실질적인 적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애플의 부상과 맞물려 노키아의 몰락이 두드러졌다고 포춘은 전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7년 2분기 휴대폰 업계 이익의 5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글로벌 휴대폰산업 이익경쟁에서 아예 탈락해 버린 것.

블랙베리폰으로 유명한 리서치인모션(RIM)은 이익점유율이 전분기와 동일한 11.0%를 보였고 대만업체 HTC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채택한 저가폰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이익점유율이 전분기의 6.0%에서 7.4%로 높아졌다.

애플의 독주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아심코는 "스마트폰 부문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온지 불과 4년 만에 전세계 휴대폰산업이 거둔 이익의 8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마진이 높은 스마트폰만 판매하는데 반해 노키아와 삼성 등 다른 기업들은 저가 휴대폰 판매 비중이 높아 판매대수는 애플을 훨씬 웃돌아도 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뒤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럽 헤지펀드 '오라이언캐피탈' 첼시에 주택단지 조성

세계에서 가장 비싼 런던 중심 부동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 주요 헤지펀드인 오라이언캐피탈매니지먼트가 첼시 거주지역에 3억파운드(약 5200억원) 규모의 주택복합단지를 세운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라이언은 주택 개발을 위한 부지 1에이커(약 4050평방미터)를 구입해 런던 최고가 부동산 자리를 놓고 원하이드파크와 경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런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금융위기 전 최고가를 넘었다. 도심 월 임대료는 6월들어 처음으로 월 평균 1000파운드(약 170만원)대를 돌파했다.

아레프 라함 오라이언 부장은 "만일 당신이 억만장자이고 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다면 런던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

'차이나머니' 日열도 대공습

일본기업 M&A 등에 中자본 5억달러 투입

'차이나머니'가 일본 열도를 노리고 있다.

인수·합병(M&A)을 비롯해 일본으로 유입된 중국 자본이 7월까지 5억7500만달러(약 6060억원)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도 4배가 넘는 규모다.

일본 기업인들은 그동안 첨단기술 유출과 자산 매각이 경제 성장을 늦출 수 있다며 중국 자본을 경계했던 것이 사실이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중국에 의한 모든 인수는 공공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최근 말했다.

FT는 그러나 이같은 시각은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은 중국의 확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중국 자본의 진출로 일본이 원치 않는 비즈니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요를 100억엔에 중국 대표 전자기업 하이얼에 매각한 파나소닉은 지난 2009년 산요를 인수했다.

당시 인수 목적은 '그린' 비즈니스 강화였다.

산요가 충전지와 태양열 에너지에 쓰이는 솔라셀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나소닉은 그러나 인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2년 만에 재매각이라는 카드를 택했다.

중국 자본의 일본 진출은 전업종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세계 4위 PC업체 레노보는 지난달 초 일본 NEC와 PC사업을 통합해 일본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은 레노보NEC홀딩스로 정해졌으며 자본금 10만유로로 출발한다.

출자 비율은 레노보가 51%, NEC가 49%를 갖기로 했다.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이 전통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 자본의 일본 진입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첨단기술업종에 중국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첨단기업들은 사업영역을 줄이고 역량 집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의 글로벌 노하우와 브랜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분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폭력은 이제 그만 브라질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위 도중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후안 모레스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브라질은 오는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폭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리우데자네이루/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럭셔리업체 "불황 몰라요"

珏 수요 증가… 구찌·루이뷔통등 매출 승승장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럭셔리업체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는 올해 글로벌 명품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8% 성장한 1850억유로(약 2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올해 글로벌 경제는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의 '재스민 혁명',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법정채무한도 증액 등 불확실성에 출렁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명품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고 전세계 억만장자들의 수요도 견실해 럭셔리산업의 성장을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인앤컴퍼니는 올해 중국 명품시장 매출이 전년보다 25%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찌와 루이뷔통 모에헤네시(LVMH)그룹 등 글로벌 럭셔리업체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매출 증가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찌의 지난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4억7000만유로에 달했고 이브생로랑(YSL)의 매출 증가율도 30%에 달했다.

구찌와 YSL의 모회사인 프랑스 PPR그룹은 이들 럭셔리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7.3% 증가한 72억2000만유로, 순이익은 24% 늘어난 4억6600만유로를 각각 나타냈다.

PPR의 프랑수아-앙리 피노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이 전세계에서 명품을 구입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럭셔리 브랜드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명품업체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루이뷔통은 최근 싱가포르에 새 매장을 열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벨기에 왈룽, 佛과 '한가족'되나

프랑스어권 지역… 주민 40% "합병 찬성"

벨기에 왈룽 지역이 프랑스와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언어권 갈등으로 끝내 분리될 경우 프랑스어권 지역인 왈룽의 주민 10명 중 4명이 프랑스 합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시사 주간지 르쥬르날뒤디망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IFOP에 의뢰해 각각 프랑스와 벨기에 왈룽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왈룽 주민은 39%가, 프랑스 시민은 60%가 왈룽의 프랑스 합병에 찬성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왈룽 지역 주민의 대부분은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역과의 갈등으로 연립정부 구성을 못해 1년여 째 무정부 상태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심각한 국가적위기에 처했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플랑드르 측의 선거구 조정과 자치권 확대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왈룽인의 83%가 반대했다.

앞서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 펜 당수는 벨기에 독립기념일 전일 발표한 성명에서 "벨기에가 언어권별로 분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만약 플랑드르가 독립을 선언하고 벨기에가 갈라지면 프랑스는 왈룽을 환영하며 품에 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왈룽 지역 최대 일간지 르수아르는 르 펜의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왈룽인은 자부심이 강해 그런 저급한 생각에 귀기울이지 않으며 왈룽이 프랑스 일부가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최첨단 골프과학의 결정체
SHURIKEN
슈리켄 골프
SHURIKEN DRIVERS 레드시리즈 탄생!
• 고반발 헤드로 비거리 향상과 하이드로샷 실현
• 마미야사의 최고급 마미야 OP 샤프트 장착
한국 총 수입원 (주)창전상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5-10 / Tel : 02)582-6114

勝 Haier

경영신조류... 승자·패자의 명전명후

⑧ 하이얼 vs 소니

SONY 敗

산요까지… 몸집 불리기 가속
글로벌 家電시장 '떠오르는 龍'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와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로 세계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가전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이얼은 28일(현지시간) 일본 파나소닉 산하 산요전기에서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등)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기업이 일본 대기업에서 주력 사업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얼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산요(SANYO)'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하이얼은 산요가 40년에 걸쳐 쌓은 판매망과 기술력을 단번에 얻어 세계 시장으로 한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또 그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일본 시장의 벽을 뚫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얼은 냉장고와 세탁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3%와 9%로 각각 1, 2위를 달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요 브랜드라는 날개까지 달게 됨에 따라 경쟁사들은 부담스럽게 됐다.

1984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한 냉장고 공장으로 출발한 하이얼은 1990년대부터 존재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1991년까지는 냉장고만 생산하다가 1992년부터는 냉동고와 공기정화기 세탁기 TV까지 생산하며 가전제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이얼이라는 회사명은 1992년 12월부터 사용했다. 1995년부터는 음향·영상가전 같은 흑색가전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1999년부터는 컴퓨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1999년 미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세계에서 29개의 생산 기지와 8개의 연구·개발 거점을 운영, 7만명의 인력을 거느린 거대 가전 공룡으로 성장했다.

하이얼은 특히 철저한 현지화로 비용 경쟁력을 높이며 몸집을 키웠다. 독자적인 제품관리방식인 OEC(Overall Every Control and Clear)를 도입해 품질관리에도 주력,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하이얼 가전왕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세계 시장에서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으며 165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10년 매출은 1357억위안(약 22조1700억원)으로, 명실공히 중국 최대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후원업체로 선정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이름이 더 알려졌고, 미국에서는 프로 농구 NBA의 후원도 맡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장루이민 하이얼 CEO

품질경영 도입으로 '승승장구'

만년 적자기업 부활 일익
포춘 글로벌 리더에 선정

중국 최대 가전업체 하이얼이 세계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장루이민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984년 하이얼의 전신인 칭다오냉장고공장의 공장장으로 부임한 그는 중국에서 최초로 품질경영을 도입해 업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가 부임할 당시, 하이얼은 연매출 5억2000만원에 매년 2억원의 적자를 내는 부실기업이었다. 그는 적자 원인 파악에 나섰고, 제품불량과 그에 따른 기업 이미지 악화, 직원들의 나태한 기강을 적자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그는 OEC(Overall Every Control and Clear)라는 제품관리제도를 도입해 품질 개선에 총력, 이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하이얼을 명실공히 중국 최대 기업으로 키우는데 일조했다. 장 CEO는 이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1999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한 '존경받는 30대 글로벌 기업가'에 이름을 올렸고, 2003년에는 미 경제 주간지 포춘의 '25명의 글로벌 리더'에, 2004년에는 포브스가 뽑은 '세계를 이끄는 8대 경제지도자'에 각각 선정됐다.

그는 경영철학으로 '3가지 3분의1'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제품의 3분의1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판매한다, 또다른 3분의1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한다, 마지막 3분의1은 해외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한다" 등 3가지다. 이것이 하이얼이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비결이다.

sue6870@

대지진 악재 실적 곤두박질
'워크맨 신화' 역사 뒤안길로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CEO

적자행진 속수무책…리더십 흔들

위기기업 부활 주도 했지만
잇단 악재 리더교체론 부상

일본 가전업체 소니의 추락에 하워드 스트링거 회장의 거취도 불안해지고 있다.

스트링거 회장은 일본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영의 감독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미국식 경영방식을 도입, 소니의 부활을 이끈 인물이다.

그는 최고경영자(CEO) 치고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옥스포드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99년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작위까지 받았다.

1978년에는 기자와 프로듀서로서 에미상 방송 저널리즘상을 수상했고, 2003년에는 영국 영화 TV 아카데미에서 브리태니아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하지만 2005년 소니의 사령탑에 오르면서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지고 있다.

"유럽 명문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소니 유나이티드가 돼야 한다"

그는 소니 CEO 취임 당시, 회사의 위기가 부문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초래됐다며 이같이 부문간 결속을 촉구하고, 성역없는 구조조정으로 위기의 소니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봄날도 잠시. 금융위기와 동일본 대지진 등 잇단 악재로 소니가 속수무책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자 스트링거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의 후임으로는 히라이 가즈오 게임사업 부문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ue6870@

자타 공인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기업' 소니(SONY)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금융 위기로 치명상을 입은 데 이어 동일본 대지진, 네트워크 해킹 등 예기치 못한 사태가 계속되면서 속수무책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도까지 3년 연속 적자 신세를 이어갔고, 특히 간판 사업인 TV 부문은 7년째 적자 행진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1 회계 1분기(4~6월) 역시 155억엔 적자였다. 동일본 대지진 충격에다 LCD TV 판매 부진이 직격한 영향이다. 이 여파로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당초 800억엔에서 600억엔으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TV 판매 목표치도 기존의 2700만대에서 2200만대로 낮춰 잡았다.

소니는 지난해에도 TV 부문에서만 750억엔의 적자를 냈고, 상황에 따라선 올해도 그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리니트론 브라운관으로 소니를 명실공히 TV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시킨 TV 부문이 소니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니가 브라운관 기술을 고집하고 유기 EL 개발에만 편중하면서 대세인 LCD TV로 이행이 늦어진 것이 최대 패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때 삼성전자와의 합작사 S-LCD로 TV 시장에서 반격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제휴는 소니의 영상 기술을 해외로 유출시켜 TV 생산 부문의 왕좌를 삼성전자에 내어 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게임 분야도 부진은 마찬가지다. 소니는 핵심 반도체 부품을 직접 개발해 차별화한 플레이스테이션(PS)과 PS2가 연달아 히트를 치면서 가전 부문에서 발생한 실적 부진을 상쇄했다. 그러나 PSX와 PS3의 잇단 실패로 2007년부터는 게임 사업도 애물단지가 됐다. 휴대형 음악 플레이어 사업도 막다른 골목이다. 애플의 '아이팟'과 스마트폰에 밀려 미니디스크(MD)와 CD롬 타입 워크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뒤늦게 네트워크와 가전을 융합한 전략으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에 급급한 소니. 지난 4월 불거진 해킹 사태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달려든 사업의 허점만 드러냈다.

소니는 올가을께 태블릿PC '소니 태블릿'과 차세대형 게임기 'PS 비타'를 출시해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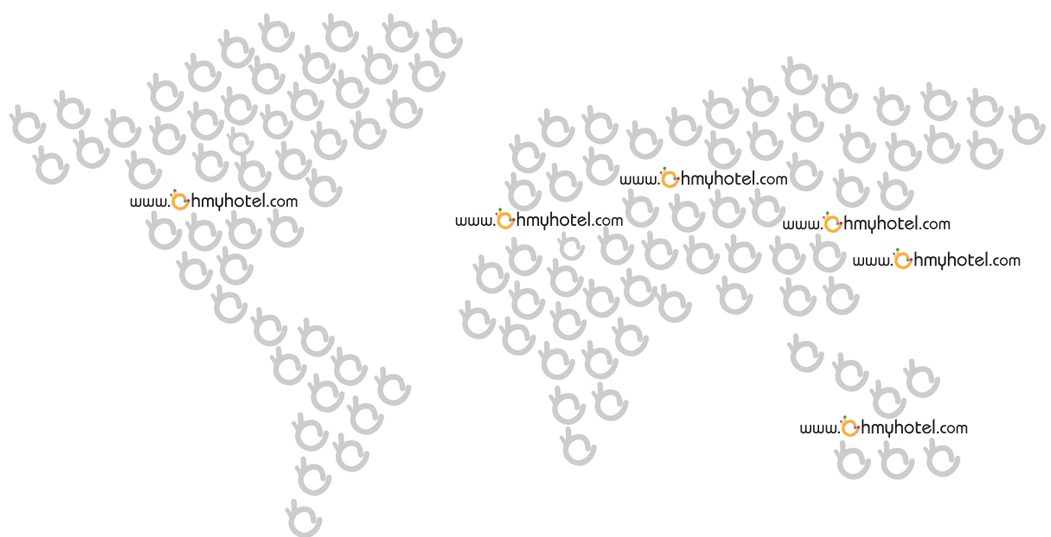
배수경 기자 sue6870@

www.ohmyhotel.com

전세계 비즈니스 트립 솔루션의 새로운 이름

수많은 전세계의 주요 도시들, 해외 출장 때 마다 숙소 예약에 골머리를 썩히고 계십니까?
오마이호텔은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세계 7만여개 호텔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요금조회에서 실시간 예약확정으로 이어지는 차원이 다른 호텔 예약 서비스
오마이호텔, 전세계 비즈니스 트립 솔루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오마이호텔



오마이호텔 기업회원 서비스

- 전 세계 7만여개 호텔 실시간 예약 기업전용 회원 운영
- 일반개인고객 대비 마일리지적립 및 요금할인 적용율 2배
- 기간별 예약 실적에 따라 숙박권 및 할인권 증정
-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주요 출장지역 전문상담원 운영

☎ 02-725-8004 국내호텔 ☎ 02-725-6767 해외호텔

bico Happy Plus BICO Tourism
㈜비코티에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6-11 BICO N B/D (121-894) hotel@ohmyhotel.com

ohmyhotel.com | Hotel Japan.com | HOTEL INFO

국내 증권업계 보기 드문 '국제 금융통'

아시아 넘버1 IB 도약 '나를 따르라'

〈투자은행〉

CEO+

우리투자증권 황성호 사장



지난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버텨낸 국내 금융사들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 중 우리투자증권은 국내 1위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기 위해 나라 안팎에서 거침없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우리투자증권의 거침없는 행보의 중심에는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있다.

두터운 글로벌 인맥

씨티은행서 금융인생 시작
다이너스클럽·PCA 거쳐
印 아제이 등 막역한 사이

◇글로벌 '금융통' = 황성호 사장은 1953년 경주 출생으로 1972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황성호 사장은 평범한 대학시절을 보냈으며 졸업 전 금융권에 몸담을 것으로 결정하고 1979년 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사를 결정했다.

이후 그는 씨티은행 이사, 다이너스클럽카드 한국지사장, 제일투자증권 대표이사 부사장, PCA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등 국내외 금융사들을 두루 거치며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글로벌 금융기법을 체득했다.

황 사장은 30여년 직장생활 동안 한국 기업에 근무한 적은 한화그룹 및 제일투신에 몸 담았던 기간을 포함해 10년이 채 안 된다.

이때 쌓아놓은 글로벌 금융인맥들 중 인도 아디티야비를라그룹의 아제이 쓰리나바산 금융부문 회장, 흥트란 국제금융협회(IFF) 부총재,팽화초이 싱가포르 풀러튼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PCA투자신탁운용 사장 시절 이 회사 아·태지역본부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아제이 회장과는 막역한 사이다.

◇취임 후 각종 부분 1위 수성 = 황성호 사장이 우리투자증권에 발을 디딘 것은 지난 2009년. 황 사장은 '금융도 수출기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지론에 맞게 지금까지 IB,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전 사업 분야에서 고른 성적을 이끌어냈다.

황 사장이 취임한 뒤 우리투자증권의 전체 고객 자산은 지난해 3월말 90조원에서 올해 3월 115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업계 3~4위에 머무르던 위탁매매 점유율 역시 1년 만에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취임 후 화려한 성적표

'금융사도 수출기업' 지론
IB·트레이딩 등 고른 실적
위탁매매는 1년만에 1위로

이 밖에도 우리투자증권은 △2009년 외국인 주식부문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펀드판매사 이동제 실시 이후 자금 순유입 규모 증권사·은행부분 1위(총 350억 원) △공모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실적 2007년부터 1위 유지 △국내채권 인수점유율 1위 △기업공개(IPO) 및 주식자본시장(ECM) 부문 1위 △인수합병(M&A) 부문 국내 증권사 중 1위 등 화려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황성호 사장은 올 한해 경영목표인 '1등 금융투자회사 완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경쟁사 대비 앞서는 부분은 업무의 질을 심화, 확실한 1등 위치를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IB준비 '착착' = 이러한 로드맵처럼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탄탄한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IB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까지 아시아 대표플레이어로 도약한다는 계획 아래 인도, 중동 및 서남아시아권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초 인도 아디트야 빌라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권 아부다비 국립은행과 카타르 이슬람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중동, 인도지역의 다양한 사업기회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 5월 중순 미국의 에버코어(Evercore) 그룹 및 브라질의 G5 홀딩과 미주 및 남미 지역에서 사업기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협정을 체결해 해외 IB 사업영역을 미주 및 남미지역까지 넓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중화권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1월 우리투자증권은 상해 사무소와 북경 리서치센터를 통합해 투자 자문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IPO 마케팅 및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말 우리투자증권은 중국의 선두 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와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CICC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구축된 홍콩현지법인, 싱가포르IB센터와 북경우리환아투자자문사와 연계한 중화권 시장 전체에 대한 토탈 커버리지(Total Coverage) 체계 구축을 완성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할 법적 근거를 IB의 자기자본 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투자증권이

대형 투자은행의 꿈

정부 기준 '3조' 가장 근접
해외 네트워크 확보도 유리
"2015년 亞 대표 플레이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은 IB 기준인 3조원에 근접한 2조629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선두권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확실히 앞서 간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황 사장. 그가 이끄는 우리투자증권의 미래가 기대된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열린 경영·열린 소통…조직문화도 새롭게

매달 1회 'CEO와 런치' 자유대화
패밀리데이 만드니 업무효율 쑥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의 경영철학은 '열린 경영'이다. 황 사장이 우리투자증권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실천한 일은 바로 열린 문화 만들기다.

우리투자증권은 CEO와 직원간에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CEO와 함께 하는 런치'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정시퇴근과 휴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우리 패밀리 데이'로 지정하고 있다.

전 직원이 5시 퇴근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기념일은 자동으로 휴가를 가는 제도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다. 황 사장은 취임 이후 전국의 영업현장을 발로 뛰며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데도 주력해 왔다.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겐 직접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도 이 같은 황사장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문이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정년을 종전 55세에서 58세로 늘리고 기업금융(IB)스쿨, 프라이빗뱅킹(PB)스쿨, 트레이딩스쿨 등 다양한 주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증권맨들의 건강이 강해져야 주식시장도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과 함께 지난 1월 여의도 공원을 달리는 '여의도를 깨우는 모임(여깨모)'를 만들었다.

그는 지난 겨울 폭설이 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임직원들과 여의도 공원에 모여 4Km를 달렸다. 하프마라톤은 7번이나 완주할 만큼 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는 황성호 사장은 선봉에 서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다. 직원들의 컨디션을 꼼꼼히 살피며 때로는 조금 빠르게, 때로는 조금 느리게 속도를 조절한다.

오전 운동이 끝나면 회사에 있는 샤워실에서 세면을 마친 뒤 운동을 함께한 직원들과 아침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다.

황 사장의 이 같은 노력은 임직원들의 체력은 물론 노사 간의 격이 없는 의견 교환으로 '1등 추진사업' 시너지를 극대화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프마라톤을 7번이나 완주할 만큼 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나 있는 황성호 사장은 지난 1월 직원들과 함께 '여의도를 깨우는 모임(여깨모)'를 만들어 매일 아침 여의도 공원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FORCS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www.forcs.com
(주)포시에스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49-6 유한양행빌딩 12층 · 대표전화 02)828-1400 / 제품문의 02)828-1431 / 팩스 02)828-1414

29세에 그룹 총수로… 김승연 한화 회장 취임 30주년

매출 41조… 30년 만에 40배로 키워내



강한 추진력으로 금융·전자 등 사업 늘려
신사업인 태양광 분야 집중… 새 도약 준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일로 취임 30주년을 맞았다. 의미 있는 날이지만 그룹은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보냈다. 최근 동반성장, 감세정책 철회 등 대기업을 압박하는 분위기와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수해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981년 29세의 나이로 그룹 총수에 오른 김 회장은 그동안 금융, 전자, 유통, 레저 등 3차 사업을 강화하며 그룹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강한 추진력, 자신감, 카리스마는 제2도약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 회장은 취임 1년 만에 당시 경영난에 빠졌던 한양화학(현 한화석유화학)을 인수, 그룹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이어 2002년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한생명을 인수했다. 대한생명은 현재 그룹의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김 회장의 추진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무렵 진행됐던 그룹 구조조정에도 반영됐다. 32개였던 계열사를 15개로 줄였다. 유사업종 간 통폐합을 통해 경영활동의 유기성을 강화했다.

그룹 매출도 일취월장했다. 취임 당시 1조원이었던 매출이 올해는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출 규모가 30년간 무려 40배 이상 성장하는 셈이다.

요즘 김 회장의 머릿 속은 온통 그룹의 미래 먹을거리로 쏠려있다고 한다. 특히 그룹 주력 신사업인 태양광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김 회장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최종적으로 태양광 사업의 수직계열화 구축을 꾀하고 있다.

실제 한화그룹은 지난해 1월 한화케미칼의 30MW 규모 태양전지 생산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모듈 기준 세계 4위 규모 태양광 회사인 '솔라펀파워홀딩스(현 한화솔라원)' 인수, 10월 태양광 기술개발 업체 '1366테크놀로지' 지분 인수, 올 하반기 연산 1만톤 규모 폴리실리콘 공장 착공 등을 통해 점차 태양광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신사업인 태양광 분야는 김승연 회장의 의지가 깊이 반영돼 있다"며 "해외 태양광 업체 인수 및 폴리실리콘 공장 설립 등으로 사업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두산, 이젠 질적 성장 집중 할 때"

박용현 회장 그룹창립 115주년 기념사



"이제는 양적(Volume) 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적(Value) 성장에 집중할 때다."

박용현 두산 회장이 1일 창립 115주년을 맞아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두산은 발 빠른 변화와 과감한 투자로 인프라지원사업(ISB)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자부심이 자칫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변화를 위한 도전과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주도 아래 과감한 기술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미래라는 철학을 굳건히 다지고 경영 전반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며 "임직원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환경이 마련되고 조직 문화, 업무 방식의 선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회사의 성장에 걸맞게 기업이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외연도 넓혀야 한다"면서 "협력업체와의 선순환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두산 고유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우 기자 acw@

"일부 노조, 투쟁만 선동하는 행태 버려야"

김억조 현대차 대표 지적
휴가 후 임단협 타결 의지

김억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노조원들의 '투쟁을 위한 투쟁' 선동 태도를 지적했다.

김 사장은 1일 현대차 전 임직원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일부 인원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투쟁 만을 선동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언급한 '일부 인원'은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파업 강행의 목소리를 높여온 강성 현장 노조원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진정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지 직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임단협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에 대해 "노조는 무조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타사의 사례를 참고해 현대차 노사의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타임오프 도입을 두고 현대차 사측은 법률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타임오프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 사장은 "타임오프는 그동안 남용된 전임자 문제를 고치기 위해 도입된 것일 뿐 결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타임오프 시행 대상 기업의 89%인 2200여개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름휴가 후 노사 간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겠다"며 휴가 후 임단협 타결 의지를 드러냈다.

정백현 기자 jjeom2@

뉴스브리핑

CEO "적정 은퇴 연령은 66.2세"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이 생각하는 적정 은퇴연령은 66.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1일 밝혔다.

연구소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CEO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정 은퇴연령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3.6%가 65세라고 답했다.

이어 19.3%가 60세, 17.4%가 70세, 5.6%가 75세, 2.5%가 80세, 1%가 90세 이상, 0.6%가 85세라고 답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는 복지지출 억제와 증세를 통한 재정 충당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다. 또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74.3%로 압도적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11.9%),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9.4%), 외국인력 유입(4.4%)이 그 뒤를 이었다.

SKT·기아차 "車 상담하면 커피 증정"

SK텔레콤은 기아자동차와 함께 자사의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골드 인 시티(Gold in City)'를 활용한 이벤트를 8월 한 달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골드 인 시티 가입자가 전국 기아자동차 매장에서 '삽질하기'라는 방문기록을 남기고 영업사원과 자동차 관련 상담을 하면, GS25 편의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 캔커피 2개 무료쿠폰을 받을 수 있다.

골드 인 시티는 삽질하기 기능을 이용해 숨겨진 혜택을 발굴하는 SNS로 SK텔레콤 가입자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T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 2년 연속 도요타 품질 우수상

포스코가 일본의 도요타 큐슈공장으로부터 2년 연속 자동차 강판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포스코는 지난달 20일 도요타 큐슈공장이 실시한 품질평가에서 품질 불량 건수 제로를 기록해 품질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상은 도요타 큐슈공장이 전체 공급사 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납품한 제품의 품질 불량 건수를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회사에 주는 것이다.

포스코는 지난 2월 도요타 본체 공장 4곳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가 매월 시행하는 품질 평가에서도 불량 발생 건수 제로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2009년 자국 생산 소재만 사용하던 도요타 본사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도요타 자동차 전시장에서 단독 전시회와 기술 발표회를 여는 등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탭 10.1과 함께 하는 탭클래스'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 딜라이트에서 '삼성 갤럭시탭 10.1과 함께 하는 탭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그우먼 신보라(오른쪽) 씨가 진행을 맡았으며 가수 BMK(왼쪽) 씨가 '폭풍 가창력을 배우는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KT, 와이브로4G 무제한 혜택 폐지

"와이브로 가입자 99.8% 데이터 50GB도 안써"
3G 요금제까지 타격올까 소비자들 노심초사

이동통신3사 최초로 KT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와이브로 단말기에서 쓸 수 있는 와이브로4G 표준요금제 및 3W형 i-요금제를 변경해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요금제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무제한 혜택을 폐지하고 세분화된 고객 사용패턴에 맞춰 데이터용량을 1~50 기가바이트(GB)까지 다양하게 구성한 것이다.

KT측은 와이브로 무제한 혜택을 폐지한 이유는 소수 가입자의 트래픽 점유로 다수 고객의 품질 확보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KT 와이브로 가입자의 99.8%는 50GB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0.002%의 소수 가입자가 600~700GB에 달하는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KT는 기기별 데이터활용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세분화했다. 전체 가입자의 82.5%가 10GB 이하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와이브로4G표준요금제'에는 소량 이용자를 위한 월정액 1만원 10G 요금제를 신설했고 '3W스마트폰용 i-요금제'에는 공통으로 와이브로 10GB를 기본제공키로 했다.

KT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폐지 칼을 빼어들자 통신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4세대 통신시장에서 와이브로 전국망을 강점으로 내세운 KT가 무제한 혜택을 폐지한 것은 향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와이브로는 시작일 뿐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까지 손보려는 수순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세림 기자 serimpark@

3W

3G(WCDMA), 와이파이(Wi-Fi), 와이브로(Wibro)의 영문 앞글자를 합쳐 3W라고 한다.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3G와 와이브로를 포함해 무선랜 와이파이 총 3개 통신망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3W단말기라고 한다. 현재 3W단말기는 KT가 제공하는 HTC 이보4G+와 HTC 플라이어4G가 유일하다.



LG전자, 첫 일체형 PC 국내 시판 시작

LG전자는 첫 '일체형(All-in-One)PC(모델명: V300)'를 국내 시장에 시판했다고 1일 밝혔다.

일체형 PC는 데스크톱PC와 모니터 등을 결합한 형태로, 복잡한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 설치가 간편하고, 일반 PC 대비 공간 효율성이 탁월한 차세대 PC 플랫폼이다.

이번에 LG전자가 내놓은 V300 시리즈는 인텔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 6월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Computex) 2011'에서 공개됐다. LG전자는 이 제품을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국가로 확대 출시할 계획이다.

V300 시리즈는 화면부 두께가 20~46mm에 불과해, 기존 일체형 PC 대비 얇고 인체공학적인 유무선 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갖췄다.

또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 모니터 지지대에 광디스크드라이브, USB, 사운드 포트 등을 탑재해 편리하고 3대의 카메라 센서를 활용해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멀티터치가 가능하다.

V300 시리즈 판매가는 사양에 따라 각각 110만원대, 150만원대, 190만원대다.

LG전자 이태권 한국HE 마케팅팀장은 "스타일과 고성능을 겸비한 일체형 PC로 더욱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새로운 고객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림 기자 serimpark@

대성, 통신·신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대구에 116억 투입 태양열 프로젝트 추진

대성그룹이 영역 확장에 나섰다. 60여년간 키워온 에너지사업 외에 통신과 신재생에너지이라는 두 축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기업의 미래를 걸고 있다.

1일 대성그룹에 따르면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대성그룹은 지주회사인 대성홀딩스를 통해 정보·통신(IT)사업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대성그룹은 지난달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이용해 통화와 메시지를 무료로 전송하는 스카이프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MVNO(이동통신재판매사업) 진출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권을 신청하는 등 통신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성그룹의 이같은 행보는 유무선 통신분야에 대한 동시진출을 모색해 세계적인 IT 혁명에 바람에 발을 나란히 하고 일원화된 성장동력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대성그룹은 신재생에너지에도 그룹의 사활을 걸었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열 발전 사업자라는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게 대성그룹의 야심찬 목표다.

현재 대성그룹은 대구 타워형 태양열 발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몽골 GEEP(Green Eco-Energy Park)와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사업 등 풍력과 태양광을 결합한 솔라윈(SolaWin)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약 116억원이 투입되는 대구 소재 태양열 발전 시스템은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국산화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해 2025년까지 전 세계 태양열 발전 시장의 1%(360MW, 약 1조원 규모)를 확보, 에너지 시장을 이끄는 마켓리더로서 위치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SK E&S·케이파워 합병

SK그룹 도시가스 회사인 E&S가 발전 계열사인 케이파워(K-Power)를 합병했다.

SK E&S는 이날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회사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최 부회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SK E&S는 LNG 수직계열화를 주도함으로써 SK의 미래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SK 측은 이번 합병으로 SK E&S의 도시가스 사업과 케이파워의 발전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사업자에서 발전 및 집단에너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온 SK E&S는 합병 시너지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 성장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SK 관계자는 "SK E&S는 2013년 1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경기 평택시에 오성복합발전소를 건설 중"이라며 "또한 해외 민간발전사업(IPP)진출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병은 향후 발전사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中企·소상공인에 올 347억 지원"

▌'기업도시' 구로구 이 성 구청장에게 듣는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 2000년 서울시 고위간부로 재직하다가 1년간 휴직계를 내고 가족과 세계일주를 떠난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이듬해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19년 동안 모은 전재산을 몽땅 털어 떠났기 때문이다. 중국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영국 북유럽 러시아 이탈리아 이집트 중동 과테말라 남미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동남아 등 40여개국 200여 도시를 일주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 2000년에 휴직계를 내고 1년간의 세계 일주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구로구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업도시인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좋은 것을 마음속에 담았다. 그 때 품었던 생각이 행정에 묻어 나왔다.

이성 구청장은 "전국 처음으로 구로구가 운영해 관심을 끌었던 '꿈나무 장남감나라'는 여행 중 체험하고 생각한 것을 여행 후 구로구 부구청장 시절에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구로

"전재산 쏟은 1년간 세계일주 경험 행정에 녹여내
"일자리 창출·환경 개선 등 주민에 이익 돌아가야"

디지털단지(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에 기업체 수가 1만개를 넘어섰고 종업원 수도 13만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구로구는 기업도시다.

구 차원에서 이들 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성 구청장에게 관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을 들어봤다.

- 구로구는 관내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인력 판로 경영 등 다방면의 기업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총 347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 300명도 지원한다.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맞춤형 마케팅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 벤처기업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을 4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무엇인가.

△ 중소·벤처기업의 각기 다른 특성과 수요에 맞춰 효과적인 마케팅지원을 펼치고자 대기업·유통기업 협력사 코칭프로그램, 벤처기업 서포터스 초청 품평회 개최, B2B(기업간 거래) 구매자금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대기업·유통기업 협력사 코칭프로그램으로 약 20개사가 삼성, LG 등 대기업 예비협력사로 등록돼 기업의 투자유치와 매출달성이라는 큰 효과를 올렸다. 넷다이버의 경우 매출이 75% 이상 성장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 올해 자금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는데 진행 상황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5%의 저리로 융자지원해 왔다. 올해도 약 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융자지원될 계획이다. 하지만 저리의 자금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구 자금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총 100억원을 구로구 내 중소기업에 융자해주고 구로구가 이자액의 일정부분(3.5%)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시중 은행금리가 6~8%선이라고 감안한다면 기업은 2.5~4.5% 저금리로 융자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 융자되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 올해 온·오프라인 유통기업을 통한 수출기업의 입점을 돕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가.

△ 지금까지 구로구 관내 기업의 우수 제품들이 국내 GS숍,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유명쇼핑몰에 입점하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는 더 나아가 이베이, 알리바바, 월마트, 코스트코 등 해외유명 쇼핑몰에 입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수출협력기업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소개하고 입점 가능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와 입점 대행,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한다.

-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활용키로 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춰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수한 기업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벤처기업 서포터스 초청 품평회 개최, 블로거 체험단 지원 등 다양한 제품홍보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 SNS를 활용한 기업 홍보도 실시한다. 신제품 개발로 홍보를 원하는 업체, B2C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 제품의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실행하려는 정책은 무엇인가.

△ 기업들이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보육·교육환경 개선,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모든 구로구민을 행복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섬기고 뛰겠다.

김경원 기자 kwkim@

'리베이트 단속' 다국적 제약사 배만 불린다

의사들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 늘어
국내 제약사 시장 점유율 뚝…뚝…



국내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단속 철퇴로 해외 의약품의 시장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옥죌수록 오리지널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만 유리해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1일 유비스트와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6월 원외처방 조제 시장에서 국내 업체 성장률은 4.0%에 그쳐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0%p 감소한 73.5%를 기록했다. 2009년 11월 이후 국내 업체 점유율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외국계 업체의 6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2% 증가한 1976억원을 기록하여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 규제 영향으로 의사들이 혹시 모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월 고혈압약인 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의 제네릭과 6월 사노피 아벤티스 '아프로벨' 의 제네릭이 출시되었지만, 정부의 강한 규제로 국내 업체의 제네릭이 아직까지는 예전과 같은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도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7월 6일 보건복지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한 약가 인하 방안에 따르면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은 현행 80%에서 70%로 낮추고 1년 후에는 다시 50% 수준으로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제네릭 가격도 현행 68%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50%까지 내릴 방침이다.

이처럼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가격이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지면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이 높은 국내사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우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0년 의약품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27.9%로 나타난 반면, 국내 제약사는 51.5%로 나타나 수익성 면에서 훨씬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상무는 "제품 한 단위의 수익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매출원가율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은 국내 제약산업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혁신신약개발에 대한 재투자 여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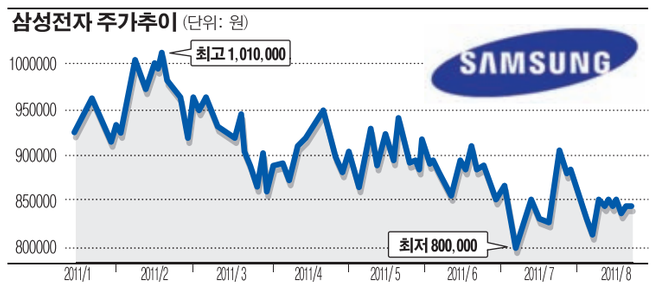


삼성전자 주가 바닥쳤나

하반기 전망 엇갈려

하반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자들은 IT의 계절적 성수기와 통신부분 호조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실적개선 행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긍정론 "IT성수기·통신 호조 통한 실적 개선"

신중론 "근본적 수요회복 어려워 지지부진"

그러나 신중론자들은 성수기 효과 외에 근본적인 수요회복은 어려렵다는 점에서 주가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

1일 증권업계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17% 감소한 3조75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9조4400만원으로 4.08% 늘었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호조에 힘입어 당초 예상을 상회했다.

이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 김성인 연구원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이 고부가 모바일 D램과 스페셜티 D램의 전량 35나노 공정 전환에 따른 원가절감, 애플 4G 혹은 5G 아이폰 및 아이패드2의 업그레이드 제품에 대응한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 출하량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인해 엘피다 등 해외반도체업체들이 감산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김장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TV수요와 반도체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엘피다의 감산 결정"이라며 "감산이 8월 중 이뤄지느냐 9월 중 이뤄지느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가 전통적으로 IT업종의 계절적 성수기란 점도 긍정적이다. 동부증권 신현준 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가전부문 실적 개선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분간 의미있는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6,7월에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선태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반도체업체들이 감산 기조를 보이면서 수요 부진을 일부 상쇄하겠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3분기에는 기본적인 IT시장 성수기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수요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부분을 제외한 타 사업들의 정체도 걸림돌이다.

안성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통신을 제외하면 2분기 이후에 실적 개선을 기대할 만한 사업부가 없다"며 "3분기 실적은 2분기 수준 내외의 실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M&A·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듭나야

금융산업 아태로 안단다 ❺ 금융권 새판짜기 〈끝〉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실물에 비해 여전히 낮다. 따라서 장기적·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은행의 글로벌화를 비롯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수준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과적이고 실질적·안정적 요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화 전략 필요= 우선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창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는 금융산업에 M&A를 위해 자동차산업에서 활용하는 M&A 전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켰다.

경쟁기업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전략개발 능력과 실행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RBS는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RBS는 2000년 3월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NatWest)'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M&A 전략을 금융산업에 적용시키는 창의적 인수 전략을 개발했다.

은행 간 합병 시에는 지점망을 통폐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RBS는 두 은행의 운영 및 IT망을 통합하는 매뉴팩처링 부서를 설립해 예상을 초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동시에 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지점들은 단 한 개도 폐쇄하지 않음으로써 합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을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RBS는 자신들이 축적한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대한 상세한 통합계획을 제시해 M&A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었던 주식시장 관계자, 직원, 기존 주주 모두에게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황별 적절한 방식 선택" = 이와 함께 현지은행 인수·합병(M&A)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 등 전략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예컨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은 적극적인 현지은행 M&A를 통해 세계 152위에서 10위권으로 성장했다.

산탄데르는 라틴아메리카를 주요 공략지로 선정해 2000년 브라질의 바네스파와 칠레의 반코 산티에고를 사들였다.

2004년에는 아베이 내셔널마저 인수해 신흥시장으로 본 중남미 시장을 접수했다. 신흥국 소형 금융회사 이후 대형 금융회사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우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산탄데르는 소매금융을 위한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남미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산탄데르가 M&A 방식을 썼다면 HSBC는 중국 진출을 함에 있어 지분투자 방식을 택했다. 중국 진출 외자은행 중 선두그룹인 HSBC는 중국 교통은행(19%), 상하이은행(8%) 등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지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인수한 이후에는 철저한 현지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인력의 현지화다.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외국 금융사들만 봐도 직원들 대부분은 한국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략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춰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짜고 상황별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IBK투자證 HTS 팍스TV 방송 서비스

IBK투자증권은 1일부터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증권포털 팍스넷이 제작하는 24시간 증권방송 팍스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팍스TV 서비스는 HTS 이용고객과 홈페이지 ID 보유 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땐 한국 가장 취약"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예대율 순위 가장 낮아

모건스탠리 보고서

가장 빠르게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시에 가장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아시아 신용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8개 국가의 은행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리스크에 따른 충격흡수 정도를 가늠한 순위에서 한국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등이다.

순위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과 예대율 등을 근거로 매겼으며 이 순위가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 리스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는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으로 꼽았다. 대만이 4위, 인도가 5위,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공동 6위로 나왔다.

한편, 이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그 당시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고 은행 시스템은 외국이나 금융기관간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역시 금융위기 이후 2년 6개월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위험 노출도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표면적인 평가지표의 일부를 사용한 분석이라면서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고재인 기자 kji@

여행사들 드라마로 간 까닭은

촬영지 히트 여행상품으로 모두·하나투어 등 잇단 협찬

"이 음료는 왜 이렇게 한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지?" 최근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을 보면 유독 자주 눈에 띄는 제품이나 기업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협찬' 형식으로 드라마 속에서 '청테이프'를 붙이고 이뤄지던 기업들의 '협찬'은 지난해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전체 방송 시간의 5%, 화면 크기의 4분의 1 범위에서 오락·교양 프로그램에서 PPL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나 예능프로에 PPL이 허용되자 상장 기업들은 드라마의 제작비를 지원하면서 홍보 효과도 누리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들 가운데 드라마 제작비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바로 여행사들이다.

모두투어는 지난 2005년부터 드라마 '주몽' '선덕여왕' '도망자' '미스 리플리' '씨티헌터' 등 10여편 가량의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런닝맨' '키스 앤 크라이' 등의 예능프로도 지원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드라마 '아이리스' '아테나: 전쟁의 여신' 에서부터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여인의 향기'의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여행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작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바로 드라마속 촬영지를 하나의 히트 '여행상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지난 2008년 방송된 KBS 2TV '아이리스'에 이어 SBS '아테나: 전쟁의 여신)' 촬영지 투어 상품을 선보였다. 모두투어는 '도망자 플랜비'의 촬영지를 엮은 관광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노골적인 제품 보여주기 구성이라면 관객들도 영화이기 전에 또 하나의 광고로 받아들여 영화 감상을 떠나 관객들의 비호감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오래플

피톤치드 산림욕기-트리플러스
treeplus

산림욕? 이제 집안에서 즐기세요!

집안의 숲, 피톤치드 산림욕기 – 트리플러스

treeplus

LIG 손해보험

특허청

〈특허 제10-098191호〉

공기 정화 및 탈취!

피부 트러블 개선!

새집 증후군 해소!

롯데마트입점!
전국 롯데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 산림욕기 트리플러스는?

국립수목원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잣의 본 고장인 **가평 잣나무에서 추출한 잣나무 정유**가 함유된 트리플러스는 피톤치드의 향이 집안 곳곳에 퍼져 냄새제거는 물론 공기정화 기능으로 365일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를 만들어 드립니다.



| 저탄소 배출, 친환경 웰빙 산림욕기 |

자연기화방식으로 유입된 공기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내부 공기의 흐름이 최적화되도록 설계하여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기본 제품에 비해 매우 적은 전력사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일한 공간을 커버하는 친환경 산림욕기입니다.



| 청소가 필요 없는 카트리지 교환방식 |

카트리지 교환방식으로 별도의 청소가 필요없으며, 피톤치드 용액패키지에는 4개의 리필용 파우치팩과 1개의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분 리필용 파우치가 소진되면, 사용중인 카트리지는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모던한 디자인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쓰세요~











♠ 피톤치드란? 식물이 해충이나 미생물 및 각종 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산하는 천연의 항균물질인 테르펜계의 복합 유기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트리플러스 특징 • 친환경 제품 • 청소가 필요없는 리필 카트리지 교체 방식 • 어댑터 및 USB 케이블 전원공급 지원 • 스파우트 파우치팩

》》 피톤치드의 기능 • 공기정화 및 탈취 • 항균 및 살균 •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보완 • 피부트러블 개선 및 진정작용 • 집먼지, 진드기 억제

이런 분께 좋습니다 피부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 | 치료 • 요양중이신 분 |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 새집증후군이 걱정 되시는 분

*트리플러스는 모든오피스 또는 Alpha 알파 대리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알파전시매장 : 본점(남대문점) 02-752-0096 | 강남본점 02-3472-6220 | 강남터미널점 02-3472-0096 | 포스코직영점 02-3453-0096 | 건대본점 02-3437-0096 | 오가락국 02-763-8855

• 출시기념 특별가 : 42,600원×3(카드3개월무이자) | 취급점 문의 : 02-3444-9238 | 무료주문전화 080-403-5500 |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무차입 vs 사채발행…실탄확보 다른 길

라이벌기업 재무 리포트

대교와 웅진씽크빅은 '눈높이'와 '창의력 학습지'란 브랜드로 방과후 학습지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이들은 업계내 선두권의 시장지위와 안정적인 영업현금 창출력을 통해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차입 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 학습지 시장의 선두주자인 대교는 무차입 경영을 통해 시가총액의 80%에 육박하는 현금성 자산 및 매각가능 투자자산을 갖고 있다. 반면 웅진씽크빅은 사업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차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에서 장·단기차입금을 조달하는가 하면 사모사채도 발행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교는 학습지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시장지위로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대교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대교는 33% 가량의 시장점유율을 기록중이며 경쟁사인 웅진씽크빅이 30% 초반대로 양사의 학습지 시장점유율은 박빙이다.

이에 따라 대교는 안정된 잉여자금 창출과 사내유보가 지속되면서 오랜 기간 무차입 경영상태를 유지했다. 비록 지난해 해외 계열사에 대한 증자를 이유로 외환은행에서 46억원 규모의 외화 대출을 받아 완전한 무차입 경영 상태가 훼손됐지만 차입금의존도는 0.5%에 불과하다. 빚이 적은 회사답게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말 기준 32.1%로 수년째 30%대에 머물러 있다.

대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계열사에 증자를 하는게 있어 단기차입금을 조달하게 됐다"면서 "환율 하락이 예상돼 국내에서 환전하는것 보다 달러를 대출 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 외화 대출을 받았는데 환율이 떨어진 현재로선 이득을 본 셈 "이라고 말했다.

매출 해마다 8000억 이상 증권·예금등 종자돈 풍부 작년 외화대출 되레 득돼

대교는 주식시장에서 자산가치 대비 크게 저평가 된 종목으로 통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시가총액의 80%에 육박하는 현금성자산과 신한지주 지분가치 때문이다. 대교는 현재 206억원의 보통예금과 368억원의 단기은행예치금 등 574억원 규모의 현금성자산을 비롯해 883억원 규모의 수익증권 및 국·공채도 갖고 있다.

또한 장부상 2403억원에 달하는 신한지주 주식 481만9975주(1.02%)도 보유중이다. 해당 주식의 취득 원가는 577억원으로 18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 있다. 대교는 지난해 35만주의 신한지주 주식을 처분해 115억원 규모의 매각 이익이 발생키도 했다. 또한 향후에도 추가로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아직 신한지주 주식의 추가 처분이 없었다"며 "하지만 대교는 비관련 투자주식 처분을 통해 주력사업인 러닝센터 등에 투자할 의사가 뚜렷해 향후에도 매각 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대교는 내부 조직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조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대교는 최근 손자회사인 대교출판과 어린이TV를 흡수합병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대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교이오엘을 흡수합병했다. 계열사를 재편성함으로써 사업부문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대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Q
매출액	8,411	8,455	8,600	2,177
순이익	212	565	494	98
자산총계	7,313	8,087	8,800	8,830
자기자본	5,256	6,032	6,734	6,686
부채총계	2,057	2,056	2,066	2,145
유동자산	2,061	2,198	2,546	2,923
유동부채	1,378	1,425	1,358	1,515
차입금	–	–	46	44
매출액증가율	−0.6	0.5	1.7	–
순이익증가율	−55.9	166.5	−12.6	–
총자산증가율	−17.1	10.6	8.8	0.3
당기순이익률	2.5	6.7	5.7	4.5
ROA*	2.9	7.0	5.6	1.1
ROE**	4.0	9.4	7.3	1.5
부채비율	39.1	34.1	30.7	32.1
유동비율	149.6	154.2	187.5	192.9
자기자본비율	71.9	74.6	76.5	75.7
차입금의존도			0.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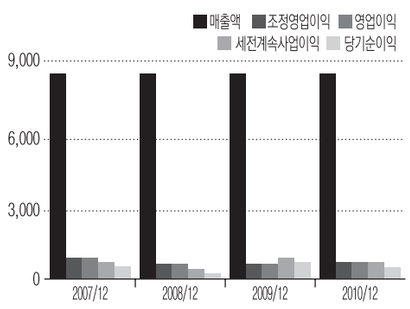
※자료:금감원(억원, %)

웅진씽크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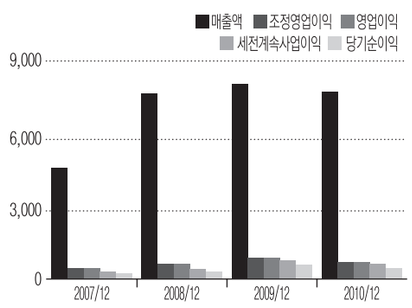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Q
매출액	7,846	8,252	7,914	1,873
순이익	286	579	448	64
자산총계	4,295	4,725	5,115	5,115
자기자본	1,972	2,367	2,510	2,380
부채총계	2,322	2,358	2,605	2,735
유동자산	1,885	2,254	2,277	2,049
유동부채	1,920	1,944	1,849	1,973
차입금	560	452	1,013	962
매출액증가율	66.0	5.2	−4.1	–
순이익증가율	32.4	102.4	−22.6	–
총자산증가율	16.7	10.0	8.3	0.0
당기순이익률	3.6	7.0	5.7	3.4
ROA*	6.7	12.3	8.8	1.3
ROE**	14.5	24.5	17.8	2.7
부채비율	117.7	99.6	103.8	114.9
유동비율	98.2	115.9	123.1	103.9
자기자본비율	45.9	50.1	49.1	46.5
차입금의존도	13.0	9.6	19.8	18.8

※자료:금감원(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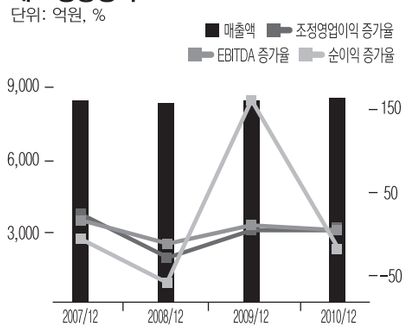
대교 주요재무항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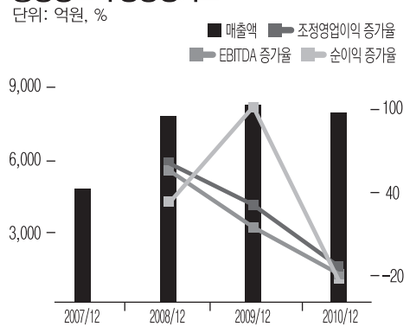
웅진씽크빅 주요재무항목
단위: 억원



대교 성장성지표
단위: 억원, %



웅징씽크빅 성장성지표
단위: 억원, %





대교와 달리 적극적인 차입 전략을 펼치고 있는 웅진씽크빅은 2009년까지 10% 안팎 수준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0년 대규모 배당과 사업 확장으로 자금소요가 증가하면서 외부자금 차입이 크게 늘었다.

웅진씽크빅의 2007~2009년 차입금 규모는 500억원 내외였으나 2010년 290억원 규모의 배당금 지급과 자회사 웅진패스원의 165억원 규모 증자 참여, 에듀왕 인수에 165억원을 사용하면서 차입금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만 자기자본이 2007년 1706억원에서 2010년 2510억원으로 늘면서 부채비율은 100%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1분기말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연 5~6%대의 이자율로 412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과 250억원 규모의 장기차입금을 조달했다.

또한 2008년 200억원과 2009년 100억원 등 3회의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웅진씽크빅은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 100억원, 3년 이내에 장기차입금 150억원과 사채 300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외부자금 차입 사업확장 부채비율 100%대에 달해 재무안전성은 훼손 안돼

웅진씽크빅이 분할 설립 이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확대로 차입금 규모가 증가했으나 우수한 잉여현금 창출력을 보유해 재무안정성 훼손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재호 한신정평가 연구원은 "2010년말 부채비율이 103.8%, 차입금의존도는 19.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투자확대로 인해 차입금 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우수한 수익창출 능력을 감안할때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진그룹 전반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웅진씽크빅의 안정적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웅진씽크빅은 웅진그룹 합산 매출과 영업이익의 20% 수준을 창출하는 그룹 내 주요계열사다. 최근 웅진그룹이 공격적인 사업영역 확장으로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재무부담이 크게 가중됐고, 이는 지주사의 주요 현금 유입원인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의 지원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정민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웅진홀딩스가 과중한 차입부담으로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극동건설의 우발채무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지원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지주사에 대한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의 자금지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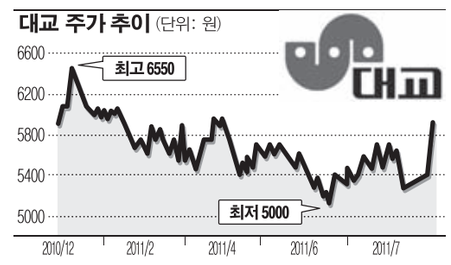
▌주가 전망

국내 학습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교와 웅진씽크빅의 하반기 주가에 대한 증권업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올해 상반기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두 기업의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최근 대교와 웅진씽크빅은 서로 엇갈린 2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두 기업 모두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은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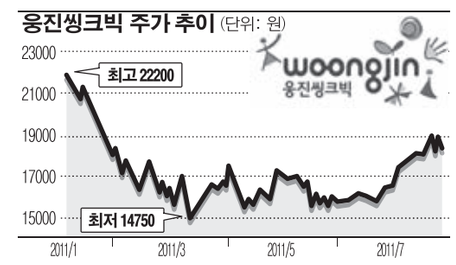
대교는 지난달 29일 전일대비 300원(5.26%) 오른 6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상반기 시장기대 수준의 외형성장을 이뤘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다. 올초 6550원이던 주가도 계속하락해 지난 6월2일 5000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교 주가 추이 (단위: 원)



배당 기대감에 '상승세' 실적불구 상승여력 충분

웅진씽크빅 주가 추이 (단위: 원)



웅진씽크빅의 주가도 상반기 일회적 마케팅 비용이 늘고 일부 전집 제품 매출이 회계 처리상 이연되면서 크게 하락했다.

올초 2만2000원이던 주가는 지난 3월 1만4750원까지 떨어졌고 이후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웅진씽크빅은 지난달 29일 전일대비 400원(2.12%) 내린 1만845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보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성장사업부의 매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집 및 학습지 사업부의 매출감소로 웅진씽크빅의 2분기 영업이익(K-IFRS 적용)은 전년동기 대비 29.6% 감소한 135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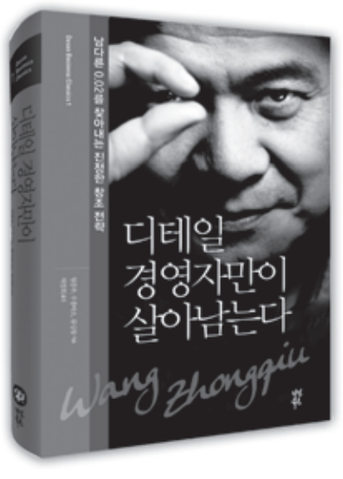
하지만 그는 "예상치를 밑돈 2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세를 보여 저점이 확인, 연간 실적추정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송 연구원은 대교의 목표주가(적정주가)를 7900원으로 잡았고 김보영 연구원은 웅진씽크빅의 목표주가를 2만원으로 설정했다. 향후 추가 상승여력은 7월 29일 종가 기준 각각 31.7%, 8.4%이다.

홍석조 기자 joe613@

시스템으로 기업의 디테일을 바꾸는

『디테일 경영자만이 살아남는다』



디테일 경영자만이 살아남는다 | 왕중추 지음 | 다산북스 | 값 15,000원

『디테일의 힘』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디테일 돌풍을 일으킨 이래, 삼성, 도요타 등 세계적 기업과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왕중추. 그의 신간 『디테일 경영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가 외쳐온 디테일 경영의 핵심과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가 달라진다 그것이 시스템의 힘!

스님 7명이 함께 살았다. 끼니때마다 7명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 한 통이 전부였다. 7명이 배부르게 먹기에는 죽이 넉넉하지 않으니 매 식사 때마다 이 죽을 어떻게 나누는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하루씩 맡아 배식하기로 했다. 그 결과 누구나 일주일에 자기가 배식을 맡은 당일에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머지않아 이 방법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덕과 인품이 높은 스님을 뽑아 배식을 맡기기로 했다. 권력은 부패를 부른다고 했던가? 이 방법 역시 각자 갖은 궁리를 짜내 그의 비위를 맞추고 뇌물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금세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결국 스님들은 최후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돌아가며 죽을 배식하되, 배식 담당은 다른 스님들이 죽그릇을 골라간 다음 남은 그릇의 죽을 먹기로 한 것이다. 가장 적은 걸 먹지 않으려면 죽을 나누는 사람은 아주 공평하게 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좀 덜 먹더라도 그건 자기 탓인 것이다. 스님들은 흡족했고 사이가 좋아져서 점점 잘 지내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제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스템의 힘"이다.

『디테일의 힘』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디테일 돌풍을 일으킨 이래, 삼성, 도요타 등 세계를 무대로 한 다국적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과 경영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왕중추. 그의 신간 『디테일 경영자만이 살아남는다』(다산북스/값15,000원)에서는 전편에서 다루었던 '디테일의 힘'을 어떻게 기업과 조직에 적용시키고 활용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생존방식은
소형 기업은 경영자에게 의존하고,
중형 기업은 제도에 의존하며,
대기업은 문화에 의존 한다"

조직이 개인을 만들고, 개인은 다시 조직을 만든다

필자가 강조하는 디테일 경영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직의 구성원 각자가 디테일 경영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떠받치는 유기적 구성체가 되는 것이다. 디테일화는 결코 기업 내 소수 리더가 아니라 기업 전체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영자는 디테일에 강한 조직을 만들고, 디테일에 강한 조직은 다시 디테일에 강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 사이에서 디테일 경영은 이미 시작되었다. 어떤 업종이든 어떤 기업이든 디테일을 장악하지 않고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업들은 시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말하는 디테일 경영은 일종의 경영시스템이다. 디테일 경영은 반드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머리 아프다고 머리에 약 바르고 이가 아프다고 이에 약 바르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성공은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디테일 경영자만이 살아남는다』에서는 바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기업의 특징과 성향에 맞게 접목해 주먹구구식의 개선을 벗어나 근본적인 혁신과 창조 전략으로 삼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다.

문의 070-7606-7408

'용산 랜드마크' 현대·삼성 자존심 대결?

▌이달 100층 빌딩 시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 내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방안이 나오면서 사업이 활로를 찾자 10조원에 이르는 시공권을 노린 대형 건설사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상징인 만큼 수익성 여부를 떠나 삼성물산 등 국내 최대 건설사들의 자존심 싸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의 향배가 지난해 용산개발 경영권을 포기한 삼성물산의 사업 재기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용산개발 상징성 커 시공권 노리는 건설사 많다 = 코레일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는 이달 용산국제업무지구 중심부에 들어설 100층짜리 랜드마크 빌딩 시공사를 선정키로 하고 입찰 선정기준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4조1632억원에 코레일이 사들이기로 한 이 빌딩에 대해 드림허브는 일정 수준의 공사수행 실적과 재무능력을 갖춘 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9월께 정식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개발사업의 상징이라 불리는 이 빌딩의 경우 시공권을 노리는 건설사들이 상당수다.

건설만 된다면 미래 대한민국의 얼굴로 서울을 해외에 알리는 광고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껏 서울을 알리는 상징건축물이 63빌딩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용산역세권개발 랜드마크 빌딩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내 시공능력 1위 현대건설
초고층빌딩 실적 앞선 삼성물산
수주 놓고 치열한 2파전 예고
타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맞설 듯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을 차치하고라도 건설사들이 이 빌딩의 시공권을 노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경영권을 포기한 삼성물산과 국내 시공능력 1위인 현대건설이 수주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들 건설사들은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랜드마크 빌딩 입찰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의 양보안으로 리스크를 덜어 낸 만큼 사업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삼성물산 랜드마크 빌딩 수주 기점 사업 재참여? = 업계에서는 랜드마크 빌딩이 용산개발 사업의 최대어인 만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2파전이나 컨소시엄 형태의 대규모 수주전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건축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가 5~6개 건설사에 불과해 국내 빅5의 건설사의 치열한 수주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드림허브 지분을 보유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초고층 빌딩 실적으로 보면 단연 삼성물산이 앞선다. 타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대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랜드마크 빌딩의 시공권을 삼성물산이 가져간다면 다시 사업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보증, 땅값 등 문제로 코레일과 삼성물산이 티격태격했지만 30조원에 이르는 사업인 만큼 사업 파트너로 다시 윈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화해의 증거가 랜드마크 빌딩 수주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코레일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드림허브측은 최대한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최대주주로 입찰참여가 물론 가능하다"며 그러나 "용산역세권개발 경영권을 포기한 이상 다른 삼성물산도 다른 주주의 일원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철저히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건설사 미분양 털기 올인하다

분양가 할인·중도금 무이자 등 각종 혜택 봇물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위해 분양가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주택시장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와 신도시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하며 미분양 털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기도 김포 양촌지구 Ac-8블록에서 분양중인 성우건설은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분양가 10% 할인과 중도금 60% 무이자, 계약금 5%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 미분양 물량은 대다수 대형평형(131㎡~162㎡)만이 남아있다.

현대산업개발의 '고양 삼송 아이파크(I'PARK)'는 고양시 삼송동 A-8블록에서 이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1000만원 이사비를 지원하고, 중도금 50%를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정부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기존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자유롭게 전매도 가능하다. 지하 2층 ~ 지상 24층, 총 7개동 610가구 분양에 78가구(126㎡~148㎡)가 미분양으로 입주는 내년 6월 예정이다.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남광토건이 분양한 '하우스토리'는 타입별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152㎡~153㎡ 프리미엄 보장제, 발코니 확장 무료 시공 △152㎡~166㎡(5~10층) 중도금 3~6회차 무이자융자 △152㎡~166㎡(5~10층) 중도금 1,2회차 무이자융자 △152㎡~166㎡(1~4층)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 △130㎡~131㎡(5층 이상) 중도금 전액 이자후불제 △130㎡~131㎡ (1~4층)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 등이다. 전 평형에 계약금 1000만원 혜택은 기본이다. 입주는 내년 7월 예정이며 전매가 가능하다.


남광토건 남양주 별내 하우스토리 조감도.

용인시 성복동에 성복자이2차는 대형평형 위주로 혜택을 줬다. 이 아파트 187㎡은 분양가의 40% 입주 후 2년간 무이자융자, 계약금 10% 파격적인 혜택으로 미분양을 모두 소진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역세권이나 광역 고속도로가 뚫리는 지역이라면 미분양이라도 괜찮은 곳이 있다. 단 대출능력 등을 감안하는 등 실수요자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배 기자·이미정 인턴기자 sbkim@

부동산 캘린더

양주 등 전국 5곳 2540가구 공급

8월 첫째주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신규분양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전국 5개 사업장에서 2540가구가 공급된다.

우선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서는 동일스위트 1292가구가 분양에 들어간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상16~20층 높이의 12개 동 규모로 전용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650만원 수준이다. 동일스위트는 양산신도시 일대에 들어서지만 신도시 택지지구에는 포함되지 않아 계약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는 정관4단지 국민임대아파트 964가구가 공급된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46㎡ 288가구가 보증금 2430만원에 월 임대료 13만6000원 △51㎡ 378가구는 보증금 2900만원에 월 임대료 17만5000원 △51㎡ 198가구는 보증금 345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00원 수준이다. 2~3일까지 순위별로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인천 강화권 강화읍에서 리퍼플라워 56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 76㎡, 83㎡형에 소규모 아파트다. 분양가는 3.3㎡당 660만원 수준이며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8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분양일정

날짜	분양내용		문의처
1일	접수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신일유토빌 3순위 접수	031)225-0092
		경기 안양시 관양동 안양관양A2블록(국민임대) 3순위 접수	1600-7100
	계약	부산 금정구 청룡동 협성엠파이어 계약 (~8/3)	051)516-0023
		부산 금정구 회동동 금성타운 계약 (~8/3)	051)523-2295
2일	접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안양관양A2블록(국민임대) 1,2,3순위	1600-7100
		인천 강화군 강화읍 리버플라워 1순위 접수	032)330-9262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4단지(A22) 1,2,3순위 접수 (~8/3)	1600-7100
		제주 제주시 연동 펠리체 1순위 접수	064)749-8866
	계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리엔파크5단지 계약 (~8/5)	1600-3456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네이처힐4단지 계약 (~8/5)	1600-3456
3일	접수	인천 강화군 강화읍 리버플라워 2순위 접수	032)330-926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동일스위트 1순위 접수	055)362-8900
		전북 익산시 부송동 영무예다음 1순위 접수	063)834-0600
		제주 제주시 연동 펠리체 2순위 접수	064)749-8866
	계약	부산 동래구 수안동 경보이리스힐 계약 (~8/5)	051)558-7007
4일	접수	인천 강화군 강화읍 리버플라워 3순위 접수	032)330-9262
		경남 양산시 물금읍 동일스위트 2순위 접수	055)362-8900
		전북 익산시 부송동 영무예다음 2순위 접수	063)834-0600
		제주 제주시 연동 펠리체 3순위 접수	064)749-8866
	발표	경남 양산시 물금읍 반도유보라3차 당첨자발표	1599-28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의봄(임대) 당첨자발표	061)726-3800
5일	오픈	경북 안동시 옥동 스타클래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054)843-1000
	접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동일스위트 3순위 접수	055)362-8900
		전북 익산시 부송동 영무예다음 3순위 접수	063)834-0600
	발표	경기 수원시 곡반정동 신일유토빌 당첨자발표	031)225-0092

※자료:부동산114

16일부터 강남 세곡 보금자리 본청약

286가구… 3.3㎡ 당 934만~1019만원

최고 '알짜'로 꼽히는 강남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09년 10월 사전예약을 받았던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A1블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청약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본청약 물량은 전용면적 59, 74, 85㎡ 809가구이며 이 가운데 사전예약 당첨자 523가구를 제외한 28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본청약 일반분양 물량은 사전예약당첨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분양가는 3.3㎡당 934만~1019만원으로 전용 59㎡가 2억3140만원, 74㎡가 3억1520만원, 84㎡가 3억5760만원이다. 이는 사전예약 당시 추정 분양가(3.3㎡당 1030만~1150만원)보다 9~12% 정도 낮아진 금액이다. 또 올 초 실시한 같은 지구의 본청약 분양가(3.3㎡당 924만~995만원)보다는 높은 것이다. 분양가가 여전히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여서 계약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5년간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청약신청은 다음달 16일~17일 사전예약 당첨자 접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홍성일 기자 hsi@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영상 DVD"
2011년 완전개정판, 합격율 99%!!
2011년 10월 23일은 '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일' 입니다.
2011년 완전개정판 강의를 수록한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그동안 신바람 공인중개사 시리즈로 공부하여 합격한 여러 선배 중개사님이 보증한 동영상 DVD입니다!
믿고 선택하여 공부하면 나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308,000원 → 198,000원 Full Set 가격 (교재별도)
절찬 판매중!
피부미용사 동영상 강의 198,000원 (교재별도)
Set 구성
▣ 부동산학 개론 (DVD 3장/42강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DVD 3장/42강좌)
▣ 중개법 및 중개실무 (DVD 3장/42강좌)
▣ 부동산 공법 (DVD 3장/42강좌)
▣ 부동산 세법 (DVD 3장/42강좌)
▣ 부동산 공시법 (DVD 3장/42강좌)
① 기본강좌를 3번 이상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필요에 따라 출제비율을 보고 강약을 조절한다.
③ 기본 강좌를 한번 더 반복 청취한다.
④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출제 경향 및 시험에 여러문제들이 나오는지 미리 공부한다.
⑤ 요점정리 강의, 문제풀이 강의 등으로 마지막 점검한다.
※ 검색창에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를 치세요!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2차 Set 198,000원(교재별도)을 구매하신 분에 한하여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1차 Set(110,000원)+21회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DVD(45,000원)을 무료로 드립니다.(선착순 500명 한)
39,600원x5개월 (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
상담문의
24시간 365일 콜 080-588-0011
|주| 나래블루미디어 인터넷 동영상(공무원, 자격증, 검정고시 강의)
www.predu.co.kr/통신 판매업 2011-서울 양천-00134
인터넷 판매처 인터파크 YES24.COM AUCTION GMARKET 알라딘 KYOBO TECHNODVD movie4989 ozdvd.co.kr DVD BANDI&LUNI'S E-MART
"세계 최고의 CD/DVD/BD 복제방지 전문 솔루션"
Protection
(주)나래블루미디어
복제방지 CD-R, DVD-R
Safe-Rom™
Safe-Rom은 복제방지 솔루션입니다
Safe-Rom은 귀사의 소중한 컨텐츠를 무단복제로 부터 보호하고 막혈한 유통성과 안전성으로 귀사의 자산을 안심하고 지킵니다
Safe-Rom의 개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면의 특별한 물질트랙과 이를 확인하는 PC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제방지가 적용된 CD-R/DVD-R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복제방지 CD/DVD/BD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Safe-Rom"을 만나 보세요!!
www.safe-rom.com (주)나래블루미디어

주간 매매·전세 동향

반갑다~ 서울 매매가 하락세 17주만에 멈칫

재건축 아파트값이 소폭 오르면서 지속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17주 만에 멈췄다.

저가 매물의 거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멈춘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이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은 양천(-0.06%) 도봉(-0.03%) 서대문(-0.02%) 성북(-0.01%) 서초(-0.01%) 마포(-0.01%) 동작(-0.01%) 관악(-0.01%) 등이 하락했다. 그러나 재건축시장은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물이 회수되면서 지난주 0.08% 올랐다.

신도시는 중대형 면적 거래 부진으로 하락했다. 평촌(-0.04%) 분당(-0.02%) 일산(-0.01%)이 소폭 하락했고 중동, 산본은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하락세가 멈췄다. 안성(0.03%) 광명(0.01%) 구리(0.01%) 평택(0.01%) 등이 소폭 올랐다.

전세시장은 집중 호우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학군 수요와 신혼부부, 개발이주 수요 등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0.06%) 신도시(0.08%) 수도권(0.05%)이 올랐다.

서울은 강동(0.28%) 강남(0.11%) 중(0.09%) 동작(0.07%) 서초(0.07%) 성동(0.06%)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산본(0.17%) 분당(0.10%) 평촌(0.06%) 중동(0.02%) 일산(0.01%) 순으로 올랐다.수도권은 서울 인접지역과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광명(0.11%) 수원(0.09%) 시흥(0.08%) 안산(0.08%) 파주(0.08%) 안양(0.07%) 등이 상승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올랐지만 각종 규제 완화 대책들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어 반짝 상승세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시장은 하반기 전세난이 예견되면서 이사 수요가 한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서도 한 달 이상 빨리 전셋값 주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셋집 이사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daniel@

1㎡=0.3025, 79㎡=24평형, 105㎡=32평형, 148㎡=45평형 단위:백만원

지역 / 아파트명(입주년도)	면적(㎡)	매매가(만원) 하한	매매가(만원) 상한	전세가(만원) 하한	전세가(만원) 상한	문의
서울(02)						
강남						
개포						
경남2차 (1985)	161	1300	1450	480	550	조은집공인 572-6800
	196	1700	2000	550	650	
주공2단지 (1982)	53	830	860	100	120	부자공인 573-5739
	61	890	920	160	170	
주공고층5단지 (1983)	102	890	950	330	350	율산부동산 3411-4989
	112	980	1050	370	400	
주공고층7단지 (1983)	102	850	900	340	360	뱅크우진공인 3411-4185
	112	950	1000	370	390	
논현						
동현 (1986)	109	740	800	280	320	월드공인 517-3400
	148	1050	1200	400	470	
대치						
대치현대 (1999)	85	530	600	320	350	114제일공인 568-8888
	128	1000	1150	600	650	
한보미도맨션1차 (1983)	113	1050	1200	400	550	다원공인 3453-8885
	152	1550	1750	600	750	
한보미도맨션2차 (1984)	113	1000	1150	380	520	다원공인 3453-8885
	136	1350	1550	550	650	
도곡						
경남 (2000)	82	540	580	270	300	써브우성공인 3463-5544
	107	700	750	360	380	
타워팰리스1차 (2002)	188	1700	1900	850	900	월가의부동산 576-0776
	224B	2200	2400	1100	1150	
타워팰리스3차 (2004)	218	2100	2400	1100	1150	월가의부동산 576-0776
	228A	2200	2600	1200	1300	
삼성						
롯데캐슬프레미어 (2007)	107A	1060	1180	480	560	해청공인 3446-8989
	145	1500	1630	670	750	
한솔 (1999)	79A	500	530	290	300	영동공인 548-8945
	79B	500	530	290	300	
힐스테이트1단지 (2008)	109A	1000	1200	570	600	영동공인 548-8945
	143A	1480	1600	680	750	
수서						
신동아 (1992)	59	340	385	160	180	114하나공인 445-5885
	69	390	440	180	200	
압구정						
미성2차 (1988)	108	950	1000	300	350	미성공인 511-4050
	185	1650	1780	550	630	
한양2차 (1977)	161	2150	2300	550	600	릿츠공인 3448-8100
	195	2100	2400	600	650	
현대8차 (1981)	115	1265	1400	320	380	압구정씨티 518-1144
	178	1940	2120	530	630	
역삼						
개나리6차 (1980)	102	950	1000	190	210	개나리공인 558-5001
	112	1050	1100	220	250	
역삼I`PARK (2006)	162B	1500	1600	730	770	개나리공인 558-5001
	180B	1600	1700	770	820	
일원						
가람 (1993)	91	730	780	320	380	고려공인 459-4455
	102	870	960	360	450	
개포한신 (1985)	89	630	680	280	300	부동산뱅크 3411-4980
	112	800	850	350	400	
강동						
고덕						
고덕1단지I`PARK (2009)	114	760	830	340	370	한덕공인 3013-0300
	147	1000	1100	400	450	
길						
삼익파크 (1983)	69	320	350	150	170	성원공인 427-9400
	79	370	400	160	170	
둔촌						
둔촌주공2단지 (1980)	52	620	630	90	110	청석공인 483-0050
	82	890	900	160	190	
둔촌주공3단지 (1980)	76	630	700	140	170	투데이공인 6419-1000
	102	755	870	170	200	
둔촌푸르지오 (2010)	83	490	500	220	260	월드공인 474-9977
	112C	680	700	320	350	
명일						
명일삼환 (1992)	109A	450	520	250	270	드림공인 4411-800
	109B	450	520	250	270	
삼익그린1차 (1982)	72	410	430	155	170	신용공인 481-7200
	105	620	650	210	230	
상일						
고덕주공3단지 (1983)	52	500	530	80	90	우성공인 428-0001
	59	570	620	100	100	
고덕주공6단지 (1983)	79	700	720	140	170	나라공인 442-4425
	89	800	820	160	180	
암사						
강동현대홈타운 (2004)	111	500	560	290	300	114월드공인 429-6060
	138	650	720	320	350	
한솔솔파크더리버 (2009)	105A	680	770	260	290	대영부동산 3013-3311
	106	680	780	260	290	
강북						
미아						
래미안트리베라1단지 (2010)	86	320	360	200	220	한길공인 984-3114
	109A	430	500	240	260	
번						
금호 (1998)	79A	250	270	140	150	양지 공인 980-6900
	109A	310	360	160	170	
수유						
벽산 (1992)	87	220	290	135	150	벽산공인 991-8811
	105N	300	390	175	195	
강서						
가양						
한보구암마을 (1996)	89C	255	300	160	170	세종공인 2659-4500
	125	350	400	190	190	
등촌						
서광 (1999)	79	290	345	195	215	명성공인 3664-8989
	105	440	475	215	240	
방화						
동부센트레빌2차 (2003)	103N	470	500	230	240	우리공인 2666-0063
	139	650	750	250	270	
현대 (1993)	82	270	330	140	160	114비전공인 2662-0040
	115	370	420	160	180	
염창						
극동 (2000)	82	250	290	170	190	교하공인 3661-7500
	105	380	460	210	220	
화곡						
우장산롯데캐슬 (2003)	115	480	560	270	290	엘리트공인 2699-8990
	170	760	820	320	370	
관악						
봉천						
관악현대 (1991)	105	360	420	220	230	행운공인 876-3000
	106	360	420	220	230	
도시개발(은천) (2000)	69	245	270	160	170	세양공인 877-0677
	82	310	345	215	225	
동부센트레빌 (2004)	79A	350	380	220	250	동부센트레빌 8844-888
	106	470	530	250	280	
벽산블루밍 (2003)	78	275	310	190	210	한양공인 882-6114
	109	380	450	240	260	
신림						
건영3차 (1991)	79	280	300	150	160	LCA공인 6084-8949
	105	425	480	200	220	
신도브래뉴 (2003)	103	430	430	230	250	1등공인 861-3500
	106B	440	440	230	250	
광진						
광장						
광장현대8단지 (1994)	95	400	430	230	240	파크공인 454-8888
	122	600	700	340	350	
자양						
자양5차현대 (1998)	82	350	400	170	190	세종공인 444-9258
	109A	500	620	210	250	
구로						
개봉						
개봉한진 (1999)	85	220	250	130	140	우리공인 2066-4924
	109SN	330	350	170	180	
고척						
대우 (1998)	82A	255	300	145	150	진성부동산 2682-0808
	105	340	400	170	180	
LIG건영 (2009)	81	300	330	170	200	코리아공인 2642-0300
	107	400	450	180	200	
구로						
구로두산 (1998)	66	200	230	135	145	대우공인 851-9300
	82	290	325	180	190	
삼성래미안 (2004)	100	430	480	260	280	삼성공인 863-3700
	132A	520	580	300	320	
신도림						
대림2차 (2001)	78A	320	360	200	220	태영공인 2675-9300
	126	520	580	270	300	
미성 (1988)	89	290	300	140	150	까치공인 2675-3393
	112	340	360	160	170	
오류						
오류동푸르지오 (2004)	79	265	320	155	180	경남공인 2612-0300
	105A	350	400	175	210	
금천						
가산						
두산 (1997)	79	270	300	160	170	하나공인 859-2929
	105	340	400	190	200	
시흥						
삼익 (1999)	79	205	235	140	150	엠아이공인 808-0020
	138	370	410	200	200	
노원						
공릉						
공릉2단지 (1994)	49	140	155	90	95	좋은집공인 972-5050
	56	165	175	100	110	
상계						
주공9단지 (1988)	69	205	225	120	125	경성공인 934-1800
	105	385	425	190	200	
월계						
미성 (1986)	42	200	220	70	75	꿀벌공인 948-4989
	69	245	260	100	120	
중계						
삼성 (1999)	82	250	330	155	180	서울공인 932-0079
	109	410	500	230	280	
도봉						
도봉						
삼환 (1987)	98	270	320	110	130	부동산114LG 956-8100
	113	280	350	110	140	
방학						
삼성래미안1단지 (2002)	122	500	580	200	270	114대상공인 997-2000
	162	640	745	250	305	
신동아2단지 (1992)	102A	260	320	130	170	동아공인 956-4400
	170	470	550	230	270	
창						
북한산I`PARK (2004)	170	800	900	330	350	삼풍공인 999-6699
	172	800	900	330	350	
상계주공19단지 (1988)	107	310	340	155	165	코오롱공인 995-0033
	126	440	460	200	240	
동대문						
답십리						
래미안엘파인 (2008)	80	330	350	210	220	양지공인 2213-2400
	139	570	640	290	300	
청계한신I`park플러스 (2010)	112	540	560	260	260	신성미소지움 2215-4945
	132	650	700	300	320	
청솔우성1차 (2000)	105	350	410	210	230	학사공인 2217-2244
	138	450	530	240	250	
한신I`park플러스그린파크 (2010)	84	320	330	0	0	신성미소지움 2215-4945
	86	320	330	0	0	
용두						
래미안허브리츠 (2010)	79C	410	450	230	260	뉴타운공인 964-8989
	112A	540	600	320	330	
이문						
삼익 (1997)	82	240	250	155	165	둥지공인 967-8249
	105	320	340	170	190	
현대 (2000)	85	240	260	160	165	행복공인 966-3600
	141	380	430	220	230	
장안						
래미안장안1차 (2003)	110	450	480	240	260	홈타운114공인 2243-8500
	143	570	720	300	320	
래미안장안2차 (2005)	69	320	360	150	170	둥지114공인 2246-5900
	82	360	400	200	220	
전농						
래미안전농2차 (2010)	84A	390	410	200	230	리더스공인 2215-1900
	111A	490	540	270	300	
동작						
노량진						
쌍용예가 (2010)	79	420	440	230	250	하나부동산 815-4300
	83	420	440	230	250	
사당						
사당롯데캐슬 (2004)	106	530	620	250	280	119공인 535-0049
	135	600	700	280	330	
상도						
래미안상도1차 (2002)	113	520	570	300	320	부동산월드 816-6300
	146	650	730	350	360	
포스코the#상도 (2007)	164	900	950	400	420	포스코114 813-8300
	181	1000	1100	430	450	
흑석						
한강현대 (1988)	92	460	480	210	230	퍼스트공인 816-8940
	105	590	610	240	260	
흑석뉴타운센트레빌 (2011)	85A	550	580	300	310	퍼스트공인 816-8940
	106C	750	770	360	400	
마포						
공덕						
래미안공덕5차 (2011)	80A	500	550	280	310	행복한집공인 702-3188
	112	670	750	350	380	
망원						
휴먼빌 (2004)	80	330	360	180	200	희망공인 334-4554
	106	420	520	210	230	
상암						
월드컵파크3단지 (2003)	109A	650	750	240	250	한강부동산 308-2800
	109B	650	750	240	250	
카이저팰리스클래식 (2010)	162B	1000	1180	370	400	라이트이안 376-0089
	192D	1300	1400	460	460	
신공덕						
래미안3차 (2002)	79	400	430	200	250	재테크공인 711-8952
	109	530	570	260	300	
KCC웰츠타워 (2011)	133A	916	926	400	450	공덕신영 717-7778
	149A	1054	1074	450	450	
하중						
한강밤섬자이 (2010)	110	750	800	350	450	밤섬합동공인 703-0056
	146	1100	1300	450	520	
서대문						
남가좌						
남가좌현대 (1998)	86	260	270	150	160	부동산가이드 302-7200
	108	410	430	180	200	
냉천						
돈의문센트레빌 (2009)	80	420	450	260	300	독립문공인 312-3700
	138A	810	850	0	0	
영천						
독립문삼호 (1995)	95	350	400	220	240	독립문공인 312-3700
	132	500	580	290	300	
서초						
반포						
래미안반포퍼스티지 (2009)	147T1	1900	2200	1200	1250	제일래미안 599-4700
	172T1	2200	2600	1350	1400	
반포리체 (2010)	84B	850	900	450	500	서울합동공인 592-2345
	113B	1200	1300	600	650	
신반포(한신3차) (1978)	109	1150	1170	290	320	다산공인 593-1001
	119	1250	1270	370	380	
방배						
방배래미안타워 (2005)	125A	800	890	480	510	타워공인 5822-007
	158A	910	1030	530	560	
서리풀e편한세상 (2010)	148	1400	1600	600	650	부동산데일리 586-7300
	185	1700	2000	800	800	
신삼호4차 (1983)	115	820	880	300	320	롯데공인 595-2226
	182	1200	1300	480	520	
우성 (1991)	109	610	660	320	340	타워공인 5822-007
	142	800	880	420	440	
서초						
래미안서초스위트 (2009)	80	710	770	420	470	씨티랜드 3482-7733
	112A	1000	1150	480	560	
삼성쉐르빌II (2002)	59	225	250	150	160	골드로즈다올 585-3060
	122	390	430	260	300	
우성5차 (1996)	114	800	820	400	450	골드로즈다올 585-3060
	174	1300	1350	450	500	
한빛삼성 (1999)	82	500	550	220	250	명성공인 536-4700
	125A	850	950	370	400	
우면						
동양고속 (1995)	99	580	630	280	300	한빛공인 571-5511
	108	650	690	300	320	
잠원						
대림 (1979)	114	900	1000	240	260	연합공인 592-1010
	163	1300	1500	300	350	
우성 (1978)	112	1030	1100	320	350	씨티공인 533-4114
	127	1150	1280	380	420	
한신17차 (1983)	90	750	800	270	290	뉴타운공인 591-0003
	162	1400	1550	500	600	
성동						
금호동1						
벽산 (2000)	86	280	350	170	210	하나공인 2298-8944
	108	400	550	220	260	
금호동4						
금호대우 (2000)	79	380	440	230	250	반도일일사 2291-9999
	109	500	630	300	350	
옥수						
옥수하이츠 (1997)	105	550	680	310	340	부동산가이드 2296-0006
	138B	650	870	350	400	
응봉						
대림2차 (1989)	82	300	370	180	190	동아공인 2296-2111
	112	430	480	200	220	
신동아 (1994)	82	300	330	180	190	동아공인 2296-2111
	105	430	480	200	220	
행당						
대우푸르지오 (2011)	79	420	460	260	280	청솔공인 2292-1122
	109B	550	600	320	350	
행당동두산위브 (2009)	82	430	480	280	300	청솔공인 2292-1122
	107	550	630	290	350	
행당한신 (2002)	81A	370	430	210	240	이화공인 2292-8222
	108	480	570	250	290	
성북						
길음						
길음뉴타운7단지(두산위브) (2010)	84	390	400	240	250	중앙알앤씨 913-9800
	112A	500	520	300	320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2010)	81B	400	430	240	250	길음뉴타운OK 3292-6000
	84A	400	430	240	250	
길음뉴타운9단지(래미안) (2010)	79A	400	430	240	250	길음뉴타운OK 3292-6000
	105	520	560	280	300	
돈암						
한진 (1995)	145	470	540	270	300	114공인 923-0303
	165	530	640	300	320	
삼선동2						
삼선푸르지오 (2007)	103A	440	490	250	280	뉴스공인 743-5224
	133	640	680	300	350	
석관						
코오롱 (1998)	79A	240	280	150	160	부동산스피드966-2900
	105	340	400	170	180	
안암동1						
래미안안암 (2005)	79	330	350	200	230	재테크공인 928-2500
	102	450	500	230	260	
종암						
래미안라세트 (2010)	108A	490	540	280	300	하나공인 915-3300
	143A	680	730	350	370	
래미안세레니티 (2009)	84D	345	385	200	230	CnH종암공인 953-0505
	109C	460	530	260	300	
종암2차SK뷰 (2010)	81B	349	375	230	240	하나공인 915-3300
	108	440	500	250	270	
하월곡						
꿈의숲푸르지오 (2010)	79A	300	340	185	200	까치공인 919-6600
	140	560	630	250	280	
코업스타클래스 (2010)	198	1190	1245	0	0	까치공인 919-6600
	223	1410	1457	0	0	
송파						
가락						
극동 (1985)	79	450	500	200	210	삼환공인 406-4545
	142	790	850	260	310	
현대5차 (1986)	82	430	500	170	180	해드림공인 409-8855
	112	540	610	220	240	
거여						
동아효성2단지 (1997)	122	620	750	260	320	부동산114 431-8800
	155	720	850	270	320	
문정						
문정래미안 (2004)	111	670	765	360	380	114삼성공인 449-0002
	146	810	900	395	440	
송파						
미성 (1985)	138	670	800	270	340	력키공인 419-3735
	195	870	1000	320	400	
신천						
잠실파크리오 (2008)	148	1300	1530	550	630	JS파크리오 418-2114
	174	1400	1800	600	680	
장미1차 (1979)	92	700	800	240	270	제일공인 422-9800
	109	800	900	270	320	
한신코아 (1989)	59	380	430	150	180	스타파크공인 423-1114
	92	570	600	240	240	
오금						
상아2차 (1988)	82	430	480	180	220	해드림공인 409-8855
	105	550	600	250	280	
잠실						
현대 (1990)	89A	520	580	200	240	LBA원원공인 414-7007
	105A	630	700	280	310	
풍납						
씨티극동 (1996)	79B	300	380	180	210	참조은공인 475-6006
	145B	650	750	250	300	
우성 (1984)	69	400	430	120	130	용진공인 487-0333
	102	600	630	180	200	
양천						
목						
목동신시가지1단지 (1985)	148B	1300	1500	430	530	우리부동산 2645-1010
	191A	1350	1600	500	600	
부영그린타운2차 (2000)	155D	750	900	430	450	금탑부동산 2645-5000
	204	930	1150	500	550	
신정						
목동현대 (1997)	128	650	680	280	300	서울공인 2654-7070
	142	700	800	310	330	
삼성쉐르빌1 (2003)	202A	1150	1250	550	600	하이페리온 2646-8765
	269	1600	1700	700	750	
양천중앙하이츠 (2010)	127A	676	689	320	350	코리아공인 2642-0300
	162	887	896	400	450	
영등포						
당산						
강변삼성래미안 (2002)	81	380	420	190	220	푸르지오공인 2631-7800
	108A	500	550	270	300	
당산동5						
효성1차 (1999)	79	360	410	240	270	대한부동산 2135-2070
	105	500	560	290	320	
대림						
코오롱 (1998)	79	270	330	190	210	부동산114현대 844-1881
	105	380	450	200	230	
신길						
보라매경남아너스빌 (2005)	105	420	530	280	310	대영공인 832-5566
	135	650	750	300	350	
여의도						
광장 (1978)	112	1000	1050	300	320	여의도그랜드 3775-3500
	148	1200	1300	350	360	
여의도자이 (2008)	185W	1550	1600	700	750	여의도그랜드 3775-3500
	204	1650	1750	700	750	
영등포						
영등포푸르지오 (2002)	82	330	398	215	230	114푸르지오 834-4000
	115A	455	550	260	280	
용산						
보광						
삼성리버빌 (2000)	81	380	450	180	210	현대부동산 749-9100
	115	580	680	250	280	
신계						
e편한세상 (2011)	81A	590	610	300	320	대림공인 704-8856
	109B	840	860	340	370	
용산동5						
용산파크타워 (2008)	128	1300	1400	400	500	새용산공인 796-3322
	134A	1300	1500	450	500	
원효로4						
산호 (1977)	99	700	750	150	170	114삼성공인 717-3399
	135	850	950	170	200	
이촌						
현대한강 (1996)	79	670	810	220	230	행운공인 714-1554
	109	860	960	260	300	
은평						
불광						
북한산래미안 (2010)	112B	550	600	260	280	114은평공인 384-4114
	151B	700	800	330	350	
북한산힐스테이트(3구역) (2010)	111A	450	500	250	250	한라공인 352-2823
	167	753	840	300	400	
수색						
수색자이 (2009)	129	639	679	250	300	태양공인 309-1400
	135A	680	760	300	350	
진관						
은평뉴타운상림마을(7단지푸르지오) (2008)	107A	460	530	220	240	뉴타운공인 354-5588
	116K	490	550	220	240	
은평뉴타운푸르지오힐스테이트(408~422동) (2010)	128C	580	650	280	300	중앙114공인 353-9700
	203B	870	930	350	400	
종로						
내수						
경희궁의아침 (2004)	148A2	1100	1250	500	600	에이스공인 736-7333
	206	1550	1650	750	800	
명륜2						
아남 (1995)	124A	500	550	280	330	114공인 747-1144
	124B	520	590	330	350	
중						
신당						
현대 (1990)	89	270	325	180	200	OK공인 2237-4114
	109	370	448	190	220	
충무로4						
남산센트럴자이 (2009)	102A	580	600	300	320	서울부동산 2277-9001
	114	620	650	330	350	
중랑						
면목						
면목한신 (1988)	59	170	185	90	100	한신공인 493-7890
	79	220	250	120	130	
묵						
묵동자이 (2010)	132B	669	709	280	300	한일공인 2209-3333
	143B	695	757	280	300	
브라운스톤태릉 (2003)	74	280	320	190	200	이수부동산 976-4670
	104	350	430	200	230	
새도시(031)						
분당						
구미						
까치신원 (1995)	157	730	900	320	370	롯데선경공인 717-1700
	198	900	1100	360	400	
무지개신한 (1996)	70	200	250	150	170	하나공인 709-2121
	91	330	370	170	210	
금곡						
두산위브 (2003)	152	750	830	370	380	W 더블 공인 712-8944
	185A	820	930	400	400	
청솔공무원 (1994)	79	350	360	190	190	청솔공인 713-2

복구도 못했는데 또 물폭탄 온다니…

4일까지 120㎜ 폭우
9호 태풍 올라오고
이번주가 최대 고비
수해지역 주민들
추가붕괴 공포



서울지역에 다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 31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57사단 병사들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형촌마을의 한 피해주택에서 추가적인 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로를 파고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중부지방에 60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번주 또 다시 최고 120㎜의 폭우가 예상돼 비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올 여름 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1일 오전 현재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많으며 특히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4일까지 전국에 걸쳐 폭우로 이어지겠으며 오는 6일 부터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중인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진로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 속단하지만 장마가 물러간 직후부터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태풍까지 닥쳐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 동부 해상에서 북상중인 태풍 무이파는 초속 50m 안팎의 '매우 강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시속 약 10㎞의 속도로 느리게 북상 중이다. 태풍의 규모도 강풍이부는 반경이 태풍의 중심으로 부터 500㎞를 넘을 만큼 '대형 태풍'으로 커진 상태다. 태풍 무파이는 오는 5일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 상하이 쪽으로 방향을 틀어 서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기상청은 또 1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에서, 새벽에서 낮 동안에는 전라남북도 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로 전날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 전망이다.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중부 일부지역은 이번 비로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수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산간 계곡이나 강가에서 야영하는 피서객들은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우면산 산사태로 발생한 피해 복구작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또 중부지방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피해 지역에서는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우면산뿐만 아니라 지난달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모산과 관악구 관악산·삼성산 인근도 피해 재발 지역으로 꼽혀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내일의 날씨 (최저/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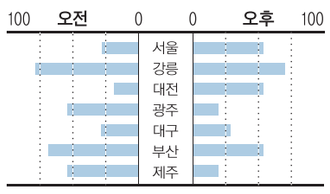
☀ 해뜸 05:36 해짐 19:40 ☽ 달뜸 08:15 달짐 20:53



지긋지긋한 비

중부와 남부지방 모두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3~32도가 되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눈·비 올 확률



※ 자료 : 기상청

"펀드 환매 안했다면 손해 단정 못해"

대법, 투자금배상청구소 원고패소판결 확정

펀드 투자자가 상품을 환매하지 않았다면 펀드로 인해 현실적·확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재단법인J장학회가 ㈜우리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장학회는 2005년 종중원들이 모금을 통해 모은 5억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정기예금 상품으로 재산을 관리해오던 중 은행 직원의 권유에 따라 예금액 전부를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지속적으로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은행은 2008년 8월 '현재 시점에서 중도해지를 한다면 마이너스 40% 내외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니 환매 여부를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장학회는 투자금 손실액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서울 중·고교 수행평가 부담 줄인다

2학기부터 배점 의무 30%제 폐지

2학기 부터 서울지역 학생·교사의 수행평가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각종 수행평가를 중간·기말 지필고사의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중·고교에서 과목별 정기고사 외 수행평가 배점 비율을 반드시 30% 이상이 되도록 한 의무 조항을 올 2학기 부터 없애기로 했다. 대신 수행평가와 중간·기말고사의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합쳐서 30% 이상만 실시하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당 2시간 이하 수업하는 과목은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를 합쳐서 20% 이상 실시하면 된다. 고교 3학년 2학기에는 수행평가 실시 여부와 비율은 각 학교가 교과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

교육청은 최근 691개 중·고교에 이같은 수행평가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번주 중 개선안을 확정해 학교 현장에서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고3의 경우 수행평가를 전혀 안 받게 할 생각이고 (나머지 중고교생은) 수행평가 비중을 시험에서의 논술형, 서술형 평가에 수행평가까지 포함해 30% 정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줄면 학생들이 평가에 대비하는 부담이 덜어질 것이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배점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올 1학기 시교육청이 도입한 수행평가 배점 비율 의무화는 단 한 학기만 시행되고 폐지된다. 이에 교육청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지 못하고 제도를 도입해 학생과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져왔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미 기자 boomi@

전동휠체어 건보부당청구 차단

품목별 가격 고시제 도입

정부가 장애인들의 전동보장구 구입을 보조하는 것을 악용해 장애인들에게 싸구려 제품을 속여 파는 등 부당한 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험급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입 및 제조 원가, 성능과 품질 등을 고려해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적정가격을 산정해 고시하는 '품목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구매시 제품별 기능 및 품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왔다.

이 규정에 따라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인 기준상한액의 최대 80%가 일률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싸고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제품 등을 수입한 뒤 고가 제품인 것처럼 속여 장애인에게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빈발했다.

실제로 공단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5833건의 전동보장구 관련 건강보험 청구 사례 가운데 364건의 부당 청구를 적발하고 1억6700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사립대 300여곳 등록금 감사

8일부터…재정운용 실태 등 점검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오는 8일 부터 전국 27~28개 대학의 등록금·재정 운용 실태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1일 각 대학에 따르면 고려대는 감사원으로 부터 8일부터 본감사를 받는다는 통보를 받고 교무처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감사 대상은 서울의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해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등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포함됐다. 지방의 D대·I대·K대·Y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감사 대상에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4년제 대학이 20여곳이고 전문대는 민원이 제기된 곳을 중심으로 1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감사 대학 중에는 올해 등록금을 작년보다 5% 안팎 올리는 등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학교와 누적 적립금이 많은 대학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대·S대 등 예비조사를 받은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도 일부 포함됐다.

본감사는 크게 △대학의 재정 운용 및 등록금 책정 실태 △부실 대학의 경영·학사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서울의 주요 대학은 대부분 재정 및 등록금 책정 실태와 관련한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과 교과부는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해 전국 30개 국·공·사립대에 대해 7~27일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본감사에는 3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과 교과부는 예비조사와 본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적정 등록금 책정과 대학교육 정책·제도 개선의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대학 퇴출에도 감사 자료를 활용할 전망이다.

김부미 기자 boomi@



신세계 해운대 센텀시티의 '두가지 행운'

구학서 회장 '선견지명' 통했다



세계 최대 백화점 공식 인증

지난달 비수기에도 매출20% 늘어

구학서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의 '선견지명'이 통한 것일까. 해운대에 자리잡은 신세계 센텀시티가 비수기인 7월에도 매출신장률이 20%에 달하는 등 부산을 대표하는 쇼핑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통상 백화점의 7~8월 매출이 부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에서는 센텀시티의 성공 비결은 구 회장의 '번뜩이는 혜안'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센텀시티는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세계최대백화점으로 공식 인증된 행운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당초 기네스 월드 레코드 인증을 목표로 해서 세워진 건물이 아니었다.

오픈 이후 구 회장이 몇몇 지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센텀시티가 동양 최대 규모라는데 그럼 세계 최대 백화점은 어디며 얼마나 큰가"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후 그는 직원에게 실제 세계 최대 백화점이 어디인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지시했다.

확인 결과 기존 세계 최대 백화점은 미국 뉴욕 메이시 백화점으로 센텀시티 보다 연면적 9만 5405㎡ (2만8860평)가 더 작은 것으로 파악됐고, 기네스 월드 레코드 등재 대행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실측과 동시에 GWR 공식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기네스등재 이후에 센텀시티 외국인 방문 고객수는 전체 방문고객수의 10%에 이르고 주말 타지역 고객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다.

또한 구 회장은 2005년 센텀시티 1단계 개발 과정에서 온천이 발견되자 온천을 통한 스파 개발을 지시했다. 쇼핑 관광명소로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백화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온천시설 도입이 가능해진 것이고 신세계 센텀시티는 세계 최초로 온천과 백화점이 겹합된 새로운 형태의 백화점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구 회장은 "신세계 센텀시티는 두가지의 행운과 더불어 센텀시티만의 차별화 브랜드와 문화, 아트 고객편의 시설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화점을 넘어 세계적인 백화점이 되도록 신세계 전 임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

데스크 칼럼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강 혁

부국장 겸 증권부장

국민연금은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다.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쉬쉬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는 정치권은 행여 표가 날아 갈까봐 모른 체 하고 있다.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도 이 문제만 나오면 한 발짝 물러선다. 유럽의 한 나라는 이 문제를 건드렸다가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그건 바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계산 방식에 따라 고갈 시점에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대로 가다간 205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대세다.

아니, 매월 꼬박꼬박 월급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데 왜 고갈된다는 것인가.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돈만내고 혜택은 받지 못해

1차 베이비 붐 세대인 55~63년생까지는 그나마 다행이다. 어찌됐건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 이후 세대는 돈 만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불편한 진실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으면 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이유로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하지 않는다.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수익률이 1%만 낮아져도 고갈속도가 5년 빨라진다고 하니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지상과제다. 연금공단이 향후 5년 동안 170조원 기금을 증시에 쏟아 붓겠다고 발표한 것은 저금시대를 맞아 주식 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전경련이 국민연금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연금 고갈 방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렇다. 국민들은 노후대책용으로 국민연금을 못 미더워한다. 최근 월지급식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자력(自力)으로 노후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럴 진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적립금의 17%인 55조원을 국내 증시에 투자해 139곳 기업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주권리 행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 3월이면 주주권 행사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특히 대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건 당연한 권리행사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노후보장이라는 대의(大義)에는 충실하지 않은 채 기업경영에 '감 나라 콩 나라' 하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주주권을 행사하면 연금 수익률이 높아져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오히려 주주권 행사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도 있다.

노후보장 大義에 충실해야

〈대의〉

또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행사주체부터 독립적이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연금공단이란 조직이 과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복마전도 그런 복마전이 없다. 남의 돈이라고 자산운용을 맘대로 하고 거래 증권사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말 안 듣는 증권사에는 불이익을 주는 등 "내 돈을 저런 곳에 맡겨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또한 현 연금공단 지배구조로는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필자도 국민연금이 선진국 유수의 연기금처럼 기업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과제를 놔둔 채 주주권 행사에 매달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orpheus@



SK자원봉사단 동두천 수해복구 지원

김신배 SK자원봉사단장(SK그룹 부회장, 가운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동두천시 수해지역에서 윤진원 SK㈜ 윤리경영부문장(사진 오른쪽) 등 임직원들과 함께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SK그룹 임직원 200여명은 이날 동두천시 중앙동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삼성전자 임직원, 아프리카서 봉사활동

삼성전자 임직원 봉사단과 삼성의료원 의료봉사단 40여명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남부 아프리카 잠비아 카푸에의 솔로본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성 봉사단원들이 봉사활동을 마친 후 28일 마을 회관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CJ그룹, 수해지역에 밥차 등 자원봉사

CJ그룹이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밥차' 등 식자재를 지원했다. CJ나눔재단과 CJ프레시웨이는 1일 이번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에 2t 분량의 쌀과 고추장· 된장·설탕 등의 양념류를 비롯해 육류와 야채류, 간식류를 포함한 각종 식자재 하루 2,500식, 7일 분량을 대한적십자사의 무료 이동 급식소인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 밥차'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지주 조정호 회장 취임



메리츠금융지주는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사진〉이 내달 1일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첫 보험지주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3월 설립됐으며, 메리츠화재,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금융정보, 리츠파트너스,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등 6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인사

◆국무총리실 ◇고위공무원 전보△외교안보정책관 김대식

◆기획재정부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소기홍

◆행정안전부 〈승진〉 ◇기술서기관 △정보화총괄과 신승인 △정보화지원과장겸미 △정보화담당관실 허정희

◆교육과학기술부 〈전보〉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은주 △특수교육과장 권택환 △교육과학기술부 이효자 △교육과학기술부 이필남 △교육과학기술부(핀란드 Turku 대학 파견) 김홍순 △국립국제교육원 구영실 ◇발령△명예퇴직 주영회 △명예퇴직 김창남

◆국토해양부 〈전보〉 ◇과장급 △투자심사팀장 김헌정 △남북협력팀장 박건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 허만욱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표용철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김영현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방현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파견 서정호 △주몬트리올총영사관 및 주ICAO 대표부 파견 박향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경렬

◆여성가족부 〈승진〉 △기획조정실장 권용현

◆환경부 〈승진〉 ◇부이사관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김상훈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유제철◇서기관 승진△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이현창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관리과 배철호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양경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류덕희

◆특허청 〈전보〉 ◇과장급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원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박현섭 △대전지역본부장 노만진 △경남지사장 김병열 △성남지사장 이주혜 △직업능력기획국장 변무장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강란혜

◆크라이슬러 코리아 △영업총괄 상무 정원덕

◆서울시 〈승진및전보〉 ◇3·4급 △지방 부이사관 이무영 △금천구 전출 안준호 △행정국 정경효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오기봉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부학장 정진화 △국제대학원 부원장 박철희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박건식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김상건

◆동의대 △인문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강경구 △법정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공순진 △상경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남수현 △자연과학대학장 정덕길 △생활과학대학장 윤군애 △공과대학장 윤항묵 △산업대학원장 김태석 △2부대학장(야간대학장) 정효운 △중앙도서관장 권혁건 △동의언론사 주간 이준호 △전산정보원장 김창규 △평생교육원장 박상호 △교육연수원장 강경구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김진덕 △관광컨벤션연구소장 이봉구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광의 △인문대학 부학장 안영식 △법정대학 부학장 박지영 △상경대학 부학장 홍한국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최승배 △생활과학대학 부학장 구은미 △공과대학 교학부학장 권순각 △공과대학 기획연구부학장 최우봉 △교육대학원 부원장 정주영 △경영대학원 부원장 박영태

◆한국경제신문 △기획조정실장 겸 감사실장 이봉구 △광고국 광고지원부장(부국장대우) 정원조△〃 광고기획부장(파견) 이익원 △〃 광고마케팅3부장(파견) 박영신 △관리국 채권관리부장(부국장대우) 송광림

◆TV조선 ◇보도본부 △팩트체크에디터 겸 행정담당 부국장 김홍진 △뉴스센터 부장 오창우 △〃 부장 정한 △정치부장 윤정호 △사회부장 이재홍 △기동팀장 장민수 △네트워크팀장 배태호 △특별취재부장 이진동 △문화스포츠부장 박종인 △보도전문위원 김구철 ◇콘텐츠본부 △교양콘텐츠팀장(국장급) 최종을◇광고사업본부△광고영업1팀장(부국장급) 장남수 △광고영업2팀장 박대하 △광고영업3팀장 이상훈 △문화사업팀장(부국장급) 임재영

부음

▲이수양 수춘(전 영천신용협동조합 전무) 수홍(전 서울시교육청 행정실장) 수근(게임물등급위원장·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씨 모친상 = 7월31일 오후 8시1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02-3410-6920

▲최중호(현대정보기술 경영지원부문장 상무)씨 모친상 = 31일 오후 2시39분, 서울아산병원 3층 32호실, 발인 2일 010-4214-4837

▲장성득(예비역 육군소장)씨 부인상, 장인국(㈜선앳푸드 근무) 지연(주부)씨 모친상, 노승현(송정관광호텔 이사)씨 장모상 = 30일 오후 9시25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2-2258-5969

▲김용진(자영업)씨 부친상, 고기완(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씨 빙부상 = 31일 오전 7시40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5호실, 발인 2일 오전 10시 031-787-1505

▲송은용씨 별세, 영소(㈜코네트인더스트리 회장·중동중고교 총동창회 명예회장)씨 부친상, 김정숙(㈜코네트인더스트리 대표이사)씨 시부상, 송성욱(㈜코네트인더스트리 기획실장) 성관(㈜코네트인더스트리 무역담당 차장) 성현(LG전자)씨 조부상, 김위정(교육개발원)씨 시조부상 = 30일 오전 0시5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발인 2일 오전 9시 02-3010-2230

▲김여석(전 한국이동통신 사장)씨 별세, 승수(금호석유화학 종합연구소장) 태수(대순진리회 교무부 연구위원)씨 부친상, 박돈(삼아제약 감사) 이세정(아시아경제신문 편집국장)씨 빙부상 = 30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장지 이천 호국원 02-3410-6916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종현 광고국장 김진택
정치경제부 (02)799-2655 증권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국제부 (02)799-2650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회생활부 (02)799-2661 유통경제부 (02)799-2667 사진팀 (02)799-2633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집에서도 밖에서도

더운 날엔 후루룩!

냉면 어~시원하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인기 음식인 냉면은 본래 우리나라 전통 토속음식 중 하나다. 몇 년 전 발표된 '뉴욕타임즈 선정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음식'에서도 겨울철 불고기와 여름철 냉면이 꼽혔다. 또한, 한국의 11가지 대표먹거리에도 자장면, 소주, 막걸리 등과 함께 냉면은 당당히 포함돼 있다.

농심·풀무원·CJ 등 가정용 간편제품 경쟁 치열

외식업계도 맛·영양 업그레드 메뉴로 입맛 사냥



농심·풀무원·CJ제일제당(왼쪽부터)의 가정용 냉면 제품들.

냉면의 뿌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메밀은 사람의 관심 없이도 잘 자라는 흔한 재료였고, 특히 산지가 많은 서북지역과 강원도 이북지역에서 주로 발달했다.

주로 이북 주민들의 음식으로 이어져오다가 6. 25전쟁 때 피난민들을 통해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다.

냉면은 크게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으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먹는 방법이다. 평양냉면은 얼음이 동동 뜬 육수에 면을 말아먹는 반면 함흥냉면은 맵고 새콤한 비빔장에 홍어나 가자미 같은 회를 넣어 먹는 비빔냉면이나 회냉면이다.

면의 성분 함량도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평양식 냉면은 메밀이 많이 함유돼 거칠고 굵은 반면, 함흥식 냉면은 감자전분이나 강냉이, 고구마 전분의 함량이 많다.

이같은 냉면의 인기를 타고 각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농심의 둥지냉면은 가정용 냉면판매 시장의 25%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5월 출시 이후 6500만 봉지가 판매됐다.

농심은 예전에 비해 일찍 찾아 온 여름철 특수와 더불어 최근 밀가루와 메밀가격의 인상으로 서울 시내 냉면 전문식당의 냉면 가격이 최고 1만1000원까지 올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둥지냉면의 월평균 매출은 20억원대로 지난 4월(20억) 대비 5월(35억)의 둥지냉면 매출신장률은 75%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풀무원은 냉장 냉면 1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잇달은 신제품 출시해 여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번 풀무원의 '삶지 않고 바로 먹는 냉면'은 물냉면, 비빔냉면 2종으로 끓는 물에 면을 익히거나 찬물에 헹굴 필요가 없는 신개념 즉석용기 냉면이다.

메밀과 풀무원의 순두부를 사용해 뽑은 메밀 곤약면은 면발이 쫄깃하며 메밀 특유의 구수한 맛과 향이 살아 있다.

이관우 풀무원식품 면류 제품 매니저는 "'삶지 않고 바로 먹는 냉면'은 함께 들어 있는 동치미 육수 또는 비빔양념장을 곁들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냉면을 바로 즐길 수 있어 야외에서의 한 끼 대용식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평안도식 동치미 물냉면'으로 이북 냉면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며 경쟁에 나섰다. '평안도식 동치미 물냉면'은 엄선된 무, 대추, 대파, 마늘 등 총 7가지 국내산 재료로 만든 동치미와 국내산 배의 단맛이 어우러져 마실수록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건강지향적인 제품 특징과 소비성향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냉장면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평안도식 동치미 물냉면'은 반조리 형태의 간편한 조리법과 맛, 영양면에서 한 단계 높아진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윤 CJ제일제당 냉장면 제품 마케팅담당 과장은 "'평안도식 동치미 물냉면'은 그 동안 CJ제일제당이 물냉면 카테고리 중 강점을 갖고 있는 '동치미 물냉면'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다"며 "깔끔하고 개운한 육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큰 인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식업계의 냉면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태창파로스는 '박'을 재료로 한 신규 외식 프랜차이즈 '무량박냉면'을 론칭했다. '무량박냉면'은 '박'을 주재료 한 냉면 전문점으로 일반 냉면에 웰빙 개념을 더하고, 냉면이 단순 여름철 음식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음식브랜드다.

무량박냉면은 다이어트식품으로 잘 알려진 '박'을 주재료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박은 일반 야채에 비해 7배 이상의 섬유질과 칼슘, 당질, 철, 인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박 속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어 음식물의 흡수와 배설작용을 촉진해 변비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몸의 해독작용 또한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강술래는 상계점에서 올 여름 식사메뉴로 회냉면을 출시했다. 무더위에 지친 고객에게 시원함과 매콤함을 제공한다.

홍어회가 고명으로 들어가 있어 같이 버무려 먹으면 지친 기력과 식욕까지 왕성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달 3일까지 돼지양념구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냉면쿠폰 증정 이벤트도 벌일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kkk@

냉면에 우리 빠지면 섭섭하지~

식초, 영양흡수 돕고 식중독 예방

계란, 면보다 먼저 먹어야 위 보호

냉면에 식초는 왜 넣을까? 냉면과 식초는 영양과 위생의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찰떡 궁합이기 때문이다.

녹말이나 육류 등을 먹으면 대사과정에서 유산이 생성된다. 이 유산이 쌓이면 피로가 가중되므로 유산은 빨리 분해될수록 좋다. 유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식초 등 유기산을 먹을 필요가 있다.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 회복제이며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숨은 공헌을 한다.

또한, 여름철에 냉면을 먹고 배탈을 일으키는 식중독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사리를 삶은 물이나 육수에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세균이 많이 섞여 있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 식중독 균은 새콤한 맛을 갖는 산성상태가 되면 생활조건이 맞지 않아 번식이 잘 안 된다. 식초가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냉면 면의 원료로 메밀을 왜 쓸까? 메밀은 변비와 고혈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메밀에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P의 한가지인 루틴이 들어 있다. 루틴은 고혈압과 궤양성 질환, 감기 치료 등에 효과가 인정되어 임상적으로 이용되는 성분이다.

냉면에 계란은 왜 넣을까? 메밀을 빈속에 먹으면 위가 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를 보호 하기 위해 계란을 넣는 것이다. 하지만 아낀다고 나중에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 보다 건강한 냉면을 즐기려면 계란을 먼저 먹자. 또한, 계란이 가지는 시각적 요소도 무시하지 못한다. 삶은 계란을 하나 통째로 넣어 주는 것보다 계란을 반을 잘라서 넣으면 흰자와 노른자의 색상 때문에 시각적인 면에서 더욱 맛있게 보이기 때문이다. kkk@





증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짱뚱어해수욕장.

텐트에 누우면 쏟아지는 별빛과 밀려드는 파도소리…

그 섬에 가고 싶다



해송숲 속 '천년의 숲 삼림욕장'



태평염전체험

신안 증도

서쪽하늘이 붉게 물든다.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온 갈매기 소리가 발치에 떨어진다. 랜턴을 밝히고 모닥불을 피운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에 여름밤이 깊어간다. 텐트 앞까지 밀려오는 파도소리에 귓전이 어지럽다. 이번 여름휴가는 섬에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 그것도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지내보는 거다. 해송숲 속에 친 텐트는 웬만한 럭셔리 리조트 부럽지 않다. 텐트 앞에는 일망무제의 바다가 펼쳐지고 밤이면 별빛이 사금파리 뿌리듯 텐트 위로 쏟아져내린다. 최근 캠핑이 새로운 레저 문화로 떠오르면서 캠핑장들도 새단장하고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도 깨끗해졌고 장비도 많이 발달해 예전처럼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우전·짱뚱어해수욕장 캠핑 가능
해변 솔숲 야영·샤워장 등 갖춰
태평염전의 소금창고 들러볼만

신안 증도는 섬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갯벌과 은빛 해변, 해변 뒤로는 짙은 녹음의 해송숲이 펼쳐진다. 뜨거운 햇살에 소금꽃을 피워내는 염전에서 즐거운 체험도 해볼 수 있다. 게다가 증도는 시간도 멈춘 것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슬로시티다.

증도는 2007년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치타슬로'(chittaslow, 슬로시티의 국제적 공식명칭) 인증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남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 담양군 창평, 하동군 악양, 예산군 대흥 등 모두 6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다. 신안 증도는 담양, 완도군과 함께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증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다. 우전해수욕장과 짱뚱어해수욕장이다. 사실 이들 두 해수욕장은 같은 곳이다. 올해 들어 우전해수욕장의 북쪽 한 켠을 짱뚱어해수욕장이라 이름붙였을 뿐이다. 엘도라도리조트가 있는 쪽을 우전해수욕장, 짱뚱어다리가 있는 쪽을 짱뚱어해수욕장이라고 부른다고 보면 된다.

우전해수욕장 쪽에는 송림이 울창하다. 여기에 야영장이 갖춰져 있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샤워장과 화장실도 갖춰져 있는데다 솔숲 바로 앞에 은빛 해변이 펼쳐져 있어 섬에서의 하룻밤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우전해수욕장의 모래는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럽다. 폭도 100m에 달하는데다 수심도 완만해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에 좋다.

해수욕장 뒷편 해송숲 속에 만들어진 '천년의 숲 삼림욕장'에는 50~60년생 소나무 10만여 그루가 들어서 있다. 50년전 거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90ha에 달하는 해송숲은 이제 증도의 또 다른 명물로 자리잡았다.

짱뚱어해수욕장에서도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샤워장과 잔디광장 뒷편으로 몽골텐트촌이 마련되어 있다. 텐트도 설치할 수 있다. 매점도 있는데다 짱뚱어다리, 읍내와도 가까워 편의성이 높다. 짱뚱어해수욕장에는 짚 파라솔과 선베드가 줄지어 서 있는데 동남아의 유명 휴양지에 온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

증도는 섬 어디서 걸음을 멈춰도, 어느 곳을 둘러봐도 눈과 귀가 즐겁지만 그 가운데서도 빼놓지 않고 챙겨 봐야 할 곳들이 있다. 가장 첫번째로 봐야 할 곳이 갯벌이다. 짱뚱어해수욕장 앞으로 드넓은 갯벌인 '갯벌도립공원'이 펼쳐진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승인된 곳으로 4224㎢의 광활한 면적을 자랑한다.

갯벌도립공원의 명물은 짱뚱어다리. 드넓은 갯벌 위에 세워진 470m 길이의 다리로 철제 구조에 나무널판을 댄 모양새가 예쁘다. 다리 아래에 짱뚱어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썰물 때는 다리 아래로 농게와 칠게, 갯지렁이, 장뚱어 등 갯벌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 다리 중간쯤에는 갯벌로 내려가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증도의 또 다른 명소는 태평염전이다. 우리나라 단일염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4.6㎢나 된다. 연간 1만6000t의 소금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국내 천일염의 6%다. 태평염전은 그 자체가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제 제360호)으로 지정돼 있다. 광활한 소금밭과 이를 가르며 길게 서 있는 소금창고는 증도의 대표적인 볼거리다. 염전 전체를 조망하려면 염전 입구 야산에 마련된 소금밭 전망대에 오르면 된다.

염전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시설이 많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입구에 있는 소금박물관. 박물관 안에는 소금의 역사와 제도, 소금으로 만든 짱뚱어 등의 조형물, 소금 생산 도구와 결정지(토판, 장판, 타일판)를 재현해 놓았다. 박물관 건물은 초창기 실제 사용했던 석조 소금창고였다고 한다. 소금박물관 역시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제 제361호)이다.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는 우전해수욕장 언덕에 자리 잡은 엘도라도 리조트를 추천한다. 유럽의 근사한 리조트를 쏙 빼닮았다. 모든 객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해수찜, 노천탕, 전통 불한증막, 한식당, 해양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가르며 섬 사이를 누비는 다도해 요트 크루저,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바다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도 즐길 수 있다.

황의신 기자 phila@

교통정보

대중교통

기차 :KTX 용산역–목포역, 주중 10회, 3시간 20분 소요.
문의 : 철도공사 1544–7788, www.korail.com
버스 :센트럴시티–목포, 매시간 운행, 4시간 30분 소요.

자가운전

서울출발 :서해안고속도로 – 북무안IC
광주출발 :광주–무안 고속도로 북무안IC
부산출발 :남해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동림IC–무안국제공항고속도로 나주IC–북무안IC



이미순의 일본 이야기

숨결마저 고풍스러운 천년고도 교토

간사이 땅에 발을 내려놓은 여행자라면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도시 교토. 794년부터 1868년까지 천년 넘게 일본의 수도로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교토는 일본인의 가슴에 가장 일본다운 도시, 마음의 고향으로 새겨져 있다. 그네들 가슴에 교토가 그토록 굳건히 자리한 이유는 도쿄에 화려한 영광을 넘겨주고도 천년고도의 멋과 기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에 짙게 밴 전통의 향기는 오늘날 교토를 찾은 전세계 여행객에게도 참을 수 없는 매혹으로 다가온다. 천년 전 시계바늘이 멈춰버린 듯한 교토 거리는 현대의 이방인을 단박에 홀린다. 물론 여느 대도시 못지않게 거대한 백화점과 쇼핑몰이 모여 있는 교토역 주변에는 현대의 시간이 흐른다. 하지만 현대의 피조물로부터 불과 몇 발자국 떼지 않아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시작된다면 이야기는 여느 도시와 사뭇 달라진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명심할 것은 보폭에 여유를 둘 것. 자연의 숨결마저 고풍스러운 교토의 진가는 느린 걸음 끝에 발견된다. 천천히 걸어 들어가자. 도시에 흩어져 있는 신사와 사찰만 2000여개다. 아름다운 자연에 산재한 문화유산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가랑비에 젖어드는 옷깃처럼 시나브로 교토의 시간 속으로 스며드는 즐거움을 누려라.

동쪽으로 발길을 잡은 이는 교토를 대표하는 명찰 키요미즈데라로 향하게 될 터. 778년 깍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이곳 본당은 일본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172개의 나무 기둥을 교차해 완성한 본당에 서면 교토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사찰에 이르는 언덕길은 가파르지만 아기자기한 기념품과 공예품, 군것질거리가 길 양옆을 꽉 채우고 있어 비탈길 오르내림이 힘에 부치지만은 않다.

해질 무렵엔 언덕을 내려와 기온 거리로 길을 잡자. 일본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인 기온 마츠리가 열리는 야사카 신사부터 카모 강까지 곧게 뻗은 기온 거리는 과거 교토에서 가장 번화했던 유흥가의 옛 모습 간직하고 있다. 기모노 차림의 게이샤나 마이코가 활보하는 이 거리의 분위기는 현대를 사는 일본인에게도 이색적이다.

긴카쿠지 일대는 한결 고즈넉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담한 선종사찰 긴카쿠지에서 좁은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철학의 길은 호젓한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이곳에서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 역시 교토여행을 풍성하게 만드는 중대요소다.

천년간 권력의 핵심부로 군림한 교토 서부에는 화려한 금빛 누각을 머리에 인 킨카쿠지를 비롯 니죠죠, 료안지, 닌나지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찰과 왕궁이 즐비하다. 주요명소간 이동거리가 제법 길어 습관처럼 발길을 재촉하게 되겠지만 욕심을 줄이면 더 많은 것을 손에 쥘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의 경지를 표현한 카레산스이 정원에서 얻는 우주의 진리 같은 원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모래 위 뜨문뜨문 놓인 돌무더기처럼 복잡한 우리 가슴에 섬처럼 박힐 빈 공간일 테니. ㈜비코티에스 대표이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다



영화리뷰 ▌블라인드

뺑소니 사건을 목격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진술 중 누가 더 신뢰가 갈까?

블라인드는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닐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시각장애인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작품이다. 영화를 연출한 안상훈 감독은 시각 장애인의 시각으로 렌즈를 조명해 색다른 영상미를 보여준다.

> 시각장애인 시선따라 범인 추적
> 김하늘·유승호 신선한 연기 호평

김하늘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뺑소니 사건의 전과정을 경험한 인물 민수아로 나와 시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경찰에게 남다른 추리 실력을 보여주며 점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사건 당시 탔던 택시에서 났던 냄새를 기억해 용의자의 직업을 분석해내며 오른손에 시계를 찬 것을 기억해 왼손잡이일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논리적으로 풀어놓는다. 반면 유승호(김기섭 역)는 뺑소니 차량이 도주하는 일부분만 눈으로 목격, 차량이 택시가 아니라고 말해 김하늘과 엇갈린 설명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게 만든다. 또한 사례금 현수막이 붙은 후 뒤늦은 신고로 인해 유승호의 신뢰도는 추락하며 둘은 서로에 대해 반감을 갖게된다.

이같은 갈등은 용의자가 김하늘과 유승호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화해 국면에 접어든다. 영화는 김하늘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을 이용해 두 사람의 협력하는 계기를 만든다. 유승호가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이용해 김하늘을 용의자로부터 도망치게 하는 신은 영화가 청각에 의존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긴박감이 넘쳤다. 용의자가 몸을 숨기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김하늘을 감시하는 장면에서는 여느 공포물에서는 볼 수 없는 섬뜩함을 제공한다.

김하늘은 눈을 뜨면서 시각장애인 연기를 해야하는 어려운 역할을 몸에 맞게 잘 소화해냈다. 유승호는 불량한 통닭 배달부로 나와 이미지 변신을 선보인다.

전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승호의 액션과 욕설(?)을 감상할 수 있다. '마음이'에 이어 '블라인드'서 수아의 안내견 슬기로 출연한 '달이'의 호연도 감동을 자아냈다.

용의자 역으로 분한 양영조는 냉정하고 침착한 연기로 악역의 또 다른 모습을 제시했다. 경찰로 나온 조희봉은 김하늘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는 인물로 무거운 분위기로 쏠릴 수 있는 영화의 균형을 잡는다.

다만 영화는 김하늘과 유승호에 집중한 나머지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블라인드가 공포 영화의 흥행 기근 속에 블라인드가 얼마나 관객을 동원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개봉한 공포물 중에서는 화이트:저주의 멜로디만이 79만명을 동원해 겨우 체면치레를 한 정도다.

한편 공포 만 18세인 유승호는 블라인드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관계로 관람할 수 없게됐다. 내달 11일 개봉.

정아름 기자 jar43@



故 앙드레김 300억대 부동산 아들·비서에게 동등하게 상속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김의 유산이 그의 곁을 지켰던 이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동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의상실 부지 2필지(561㎡)를 비롯해 지상 5층과 지하 2층짜리 의상실 건물,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97㎡, 경기도 용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뜰리에' 2797㎡ 등은 약 300억원을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세 종류의 재산 모두 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가 평생 일하면서 일구고 가꾼 재산은 모두 근저당과 소유권 등에서 자유롭게 해놓은 흔적이 엿보여 그가 아뜰리에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했다.

지난해 8월 12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관심을 받아왔던 그의 유산상속은 모두 앙드레김의 아들인 김중도씨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사망 1주년을 앞두고 취재한 결과 그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은 아들과 그의 곁을 30년간 지켰던 비서 임세우씨에게도 동등하게 유증돼 눈길을 모았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약 300억원대를 웃도는 신사동에 위치한 2필지(540㎡) 는 김중도씨와 임세우씨가 절반씩 공동 소유하게 됐다. 그가 평생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장소였던 만큼 아들과 비서가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게 만드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생전 거주하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97㎡는 김중도씨에게 일괄 유증했다.

신사동 아뜰리에가 자리 잡은 후 용인에 땅을 구입해 세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고메동에



위치한 아뜰리에 부지와 건물 2797㎡은 1·5은 아들 김중도씨에게, 4·5는 비서인 임세우씨에게 남겼다. 용인의 건물은 현재 시가로 약 70억원에 이르렀다.

그가 남긴 유산인 압구정 아파트와 신사동 아뜰리에, 그리고 용인에 세운 아뜰리에는 평생 쌓아올린 기록으로, 그가 아뜰리에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만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이다.

생전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이 보다 몇 배의 액수였지만, 지속적인 기부나 사회봉사 활동으로 재산 축적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한편 앙드레 김은 생전 약 20여년간 세계각국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디자인한 옷을 후원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김경묵 감독 '줄탁동시' 베니스영화제 진출

'오리종티' 부문에… 경쟁 부문 초청 못받아

김경묵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줄탁동시'가 제68회 이태리 베니스 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오리종티' 부문에 선정됐다. 오리종티는 영화제에서 혁신적인 경향의 영화를 소개하는 경쟁 섹션이다.

28일(현지시간)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태리 로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경묵의 영화는 강렬한 영화적 이미지와 파격적인 편집효과가 뛰어난 영화" 라고 밝혔다. 오리종티 부문에는 지난해 홍상수 감독의 '옥희의 영화', 김곡·김선 감독의 '방독피'가 진출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공식 경쟁 부문에서 한국 영화는 지난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 이후 한 편도 초청받지 못했다.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서는 조지클루니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정치스릴러물 '3월 15일', 폴란드 거장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대학살',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위험한 방법' 등이 스크린에 걸린다.



'3월 15일'은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영화제는 내달 31일~9월 10일 베니스서 열린다.

정아름 기자 jar@

'女 골프지존'은 역시 청야니

브리티시 여자오픈 역전 우승… 대회 2연패

22세 6개월만에 역대 최연소 메이저 5승 달성



메이저대회 5승을 달성한 청야니가 리코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트로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AP/연합

청야니(22.대만)는 역시 강자였다.

한국은 미국프로골프(LPGA)투어 통산 '100승 신화'를 놓친 가운데 세계여자골프 랭킹 1위 청야니는 리코브리티시여자오픈(총상금 250만달러)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청야니는 31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의 커누스티 골프링크스(파72. 6,490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3타를 줄여 합계 16언더파 272타(71-66-66-69)로 브리타니 랭(미국)을 4타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39만2천달러.

이로써 청야니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타이틀을 손에 쥐며 지난 6월 LPGA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메이저대회에서 5승을 달성했다.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2연패한 것은 1998, 1999년 챔피언 셰리 스타인하워(미국) 이후 청야니가 12년 만이다. 이 대회가 2001년 메이저대회로 승격한 후 대회 2연패는 청야니가 처음이다. 또 22세6개월8일의 역대 최연소로 메이저 대회에서 5승을 기록했다.

2008년 LPGA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첫 승을 따낸 청야니는 지난해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 올해 LPGA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여자오픈 등 다섯 번이나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다만, US여자오픈에서 유소연(21.한화)에 우승컵을 내주는 바람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놓쳤다.

이날 선두 카롤리네 마손(독일)에 2타차로 뒤진 채 티오프한 청야니는 마손이 78타로 무너진 덕에 손쉽게 우승컵을 안은 것. 사실 청야니는 1번홀에서 보기로 불안한 출발을 보였으나 3, 6번홀에서 버디를 골라내며 샷감각을 찾아갔다.

후반들어 다시 12,13번홀에서 줄보기를 범했으나 14번홀 버디에 이어 17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우승쐐기를 박은 청야니의 18번홀 버디는 갤러리들을 위한 보너스였다.

청야니는 첫날 71타로 중위권에 머물렀으나 2라운드에서 66타를 쳐 공동 7위에 오르더니 3라운드에서 역시 66타를 쳐 2위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LPGA투어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청야니는 올해도 상금,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한국은 양희영(22.KB금융그룹)이 합계 10언더파 278타로 단독 4위를 마크했고 최나연(24.SK텔레콤)과 유선영(25.정관장)은 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7위에 만족해야 했다.

안성찬 기자 golfahn@

■청야니는 누구

'1인 독주체제'를 갖춘 청야니(22.대만)는 지난해 9월 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5년간 2천500만달러를 후원하고 전세기와 고급빌라를 제공할테니 국적을 중국으로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해 화제를 모았던 선수다.

2004년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 링크스대회 결승에서 미셸 위(22.나이키골프)를 꺾고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청야니는 2005년 미국여자아마추어선수권에서 다시 정상에 올랐다.

2007년 1월 프로에 데뷔한 그는 2008년 LPGA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신인왕을 손에 쥐었다. 2009년 3월 LPGA투어 데뷔 후 가장 빠른 기간(1년1개월13일)에 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했다.

청야니는 애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게 자주 조언을 들을 정도로 절친하다. 청야니는 2009년 4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소렌스탐이 살던 집을 구입해 현재 그곳에서 살고 있다.

청야니의 목표는 커리어 그랜드슬램.

이는 4대 여자골프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웨그먼스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여자오픈을 시즌에 관계없이 모두 제패해야 한다.

2007년 데뷔 이후 승승장구

최단기간 상금 200만 달러 돌파

최연소 커리어 그랜드슬램 목표

청야니는 지난 7월 US여자오픈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했다. US여자오픈에서는 유소연(21.한화)이 우승컵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커리어 그랜드슬램 최연소는 27세 때 기록한 캐리 웹(호주)과 미키 라이트(미국)다. 따라서 청야니가 앞으로 4년 안에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해야만 커리어 그랜드슬램 최연소 주인공이 된다.

golfahn@

변현민, 생애 첫 정상

히든밸리오픈 연장 우승



"캐디를 해주신 어머니께 우승컵을 드립니다."

변현민(21·사진)이 SBS투어 히든밸리여자오픈(총상금 4억원)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프로데뷔후 첫 정상에 올랐다.

변현민은 31일 충북 진천의 히든밸리GC(파72. 6,526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5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208타를 쳐 아마추어 국가상비군 김보아(16.보영여고1)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정규투어에 합류한 변현민은 지난해 하이마트여자오픈과 올해 러시앤캐시여자오픈에서 공동 14위에 오른 것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18번홀(파4)에서 벌어진 연장전에서 변현민은 세컨드 샷을 홀과 50cm이내에 붙여 버디를 골라냈으나 김보아는 4.5m에서 첫 퍼팅이 홀을 지나쳐 파에 그쳤다.

이로써 변현민은 다른 선수의 2승을 막아내면서 시즌 10번째 첫 승 주인공이 됐고 우승상금 8천만원을 보태 총상금 1억3백여만원을 획득했다.

변현민은 "정말 기쁘다. 어머니께서 캐디를 해주셨는데 우승하고 어머니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께 걱정을 한시름 놓게 해드려 마음이 놓인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golfahn@

'뒷심부족' 앤서니 김 공동 14위

그린브리어클래식

3R 선두서 추락…스털링스 정상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의 한계인가.

전날 선두였던 앤서니 김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그린브리어클래식(총상금 600만달러)에서 공동 14위에 그쳤다.

앤서니 김은 1일(한국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화이트 설퍼스프링스의 올드화이트 TPC(파70. 7,20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4타나 잃어 합계 6언더파 275타(69-69-62-74)쳐 전날보다 13계단이 떨어졌다.

지난해 4월 셸 휴스턴오픈이후 우승이 없는 앤서니 김은 이날 드라이버 평균 거리 320야드에 페어웨이 안착률 50%, 그린 적중률 61%를 기록하고도 퍼팅난조(33개)로 버디없이 보기만 4개 범하며 경기를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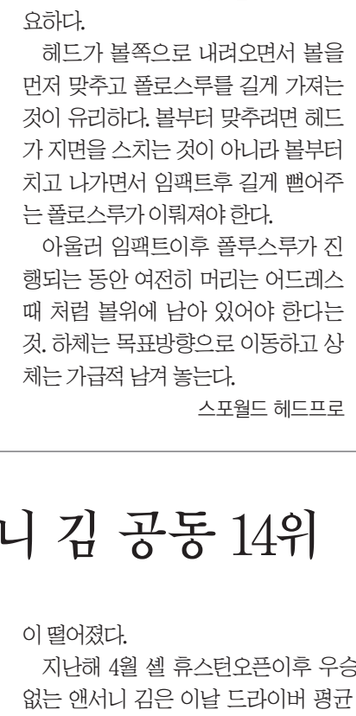
한편 우승은 스콧 스털링스(미국)에게 돌아갔다. 스털링스는 빌 하스, 봅 에스테스(이상 미국)과 합계 10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연장전에 돌입, 첫홀에서 버디를 챙겨 지난해 정규투어 데뷔후 첫 정상에 올랐다.

golfahn@

봉태하의 포토레슨

파워는 줄이고 볼 아래쪽 쳐야

페어웨이 우드 샷



미셸 위가 페어웨이에서 우드 샷을 하고 있다. AP/연합

페어웨이 우드는 드라이버처럼 거리를 내는 클럽. 단타자(短打者)로 고민하는 골퍼나 4,5번 등 롱아이언의 어려움을 겪는 골퍼에게 딱 맞는 클럽이다.

'우드의 달인' 김미현은 우드를 11번까지 갖고 다닐 정도다. 최경주나 양용은 등 톱 프로들도 유틸리티나 하이브리드 클럽 등 우드를 롱아이언 대신 사용한다.

유틸리티나 하이브리드는 페어웨이 우드에서 변형된 클럽으로 우드와 아이언 특장점을 살려 제작한 클럽으로 무엇보다 사용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우드를 잘 치려면 부드러운 스윙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드를 잡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은 오간데 없다. 티샷한 거리를 만회하거나 거리를 더 내야한다는 압박감으로 자신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가 미스 샷을 내기 일쑤다.

재미난 사실은 우드의 실수는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유는 처음에 뒤땅을 치거나 토핑이 나면 어깨에 더욱 힘이 들어가고 결국 경직된 스윙은 또 다른 미스 샷을 낳는다. 특히 우드의 실수는 볼을 띄우려는 마음이 앞서 토핑이 나고 샤프트가 아이언 보다 길다보니 손목이 먼저 풀어져 곧잘 뒤땅을 친다.

멋진 우드샷을 하려면 여성의 스윙처럼 파워를 최대한 줄이고 거리는 클럽에 맡겨둔다. 대개 빗자루를 쓸 듯 치라고 하는데, 이보다 약간 박아치는 기분으로 샷을 하면 거리 손실을 줄이고 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어퍼블로 샷이지만 우드는 역시 페어웨이에서 볼을 치므로 다운블로 샷 감각이 더 필요하다.

헤드가 볼쪽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먼저 맞추고 폴로스루를 길게 가져는 것이 유리하다. 볼부터 맞추려면 헤드가 지면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볼부터 치고 나가면서 임팩트후 길게 뻗어주는 폴로스루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임팩트이후 폴루스루가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머리는 어드레스 때 처럼 볼위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하체는 목표방향으로 이동하고 상체는 가급적 남겨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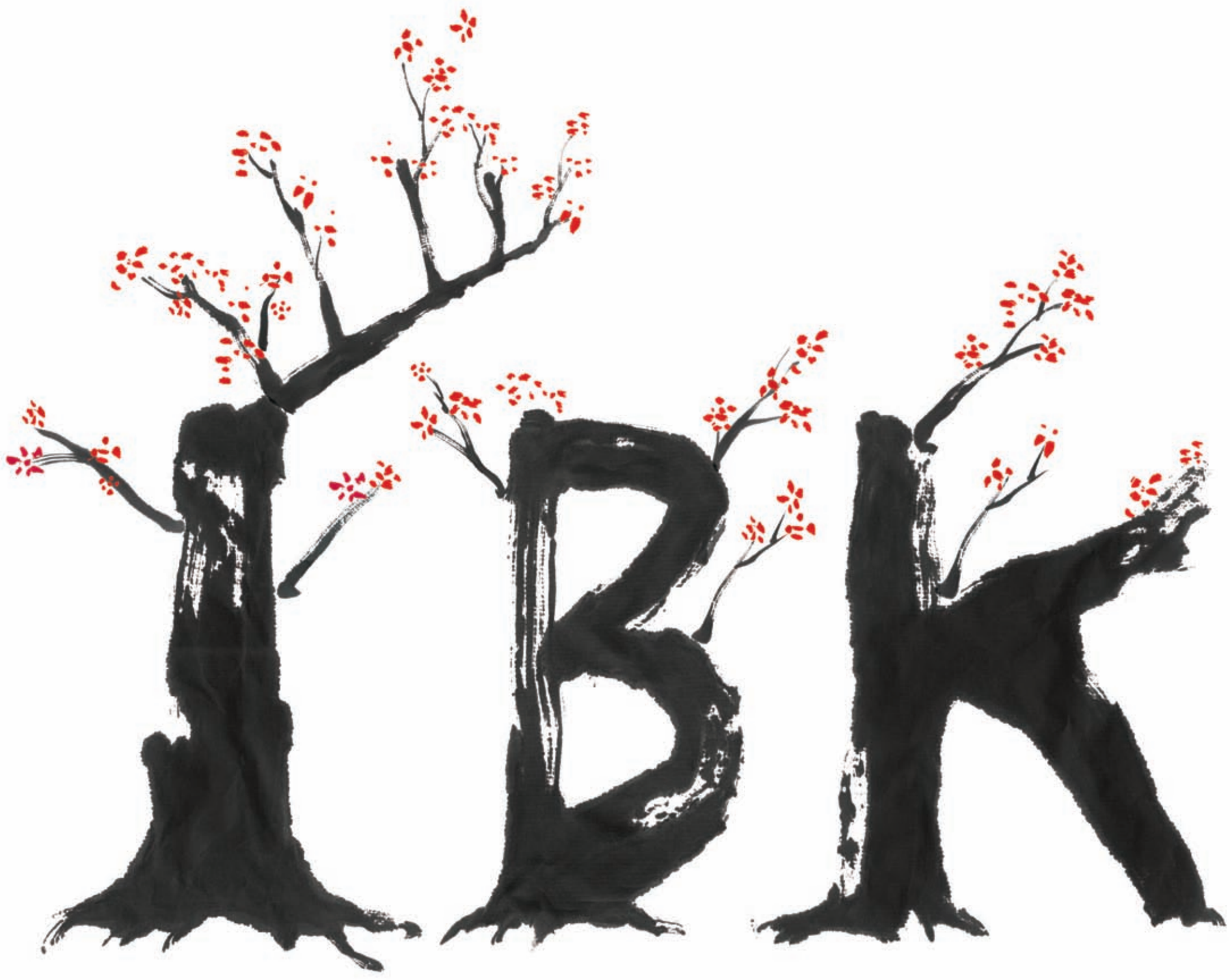
스포월드 헤드프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IBK 50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오늘 IBK기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업은행에 보내주신 일천만 고객님의 성원은
78만여 중소기업의 땀방울을 꽃으로 피워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에도 더 큰 열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8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
50년 IBK기업은행이
78만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2011년 대한민국 경제를 빛내주신
귀하의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홍기 회장
오영산업(주)


권희현 회장
(주)대한솔루션

역대 명예의 전당 헌정 기업인

- 제1회 **김동수 회장** 한국도자기(주) / **김상면 회장** 자화전자(주) / **김재경 회장** 인탑스(주) / **홍완기 회장** (주)홍진HJC
- 제2회 **박인철 회장** (주)썬스타 / **이충곤 회장** 에스엘(주) / **최관수 회장** (주)디지아이
- 제3회 **강선중 회장** (주)크로바케미칼 / **구자신 회장** 쿠쿠전자(주) / **유영희 회장** (주)유도 / **정구용 회장** 인지컨트롤스(주)
- 제4회 **곽노권 회장** 한미반도체(주) / **정우철 회장** (주)일삼
- 제5회 **김강희 회장** (주)동화엔텍 / **류덕희 회장** 경동제약(주) / **여우균 회장** (주)화남피혁 / **임정환 회장** (주)명화금속
- 제6회 **문영훈 회장** 하이록코리아(주) / **임종관 회장** (주)모아텍
- 제7회 **김재경 회장** (주)동보 / **현창수 회장** 태양산업(주)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